

터키인이 본 6.25전쟁
KORE SAVAŞI 1950-1953



터키인이 본
6.25전쟁
KORE SAVAŞI
1950-1953

지음 알리 데니즐리(Ali Denizli)

옮김 이선미

감수 이난아

해제 노영구

터키인이 본 6.25전쟁

KORE SAVAŞI
1950-1953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값 12,000원



ISBN 978-89-98443-71-9
ISBN 978-89-98443-69-6(세트)

발간등록번호 11-1871480-000073-01





KORE SAVAŐI 1950-1953





지음 **알리 데니즐리** Ali Denizli

1954년 앙카라에서 태어나 1975년 군사학교, 1976년 보병학교를 졸업했다. 1982년까지 지상군 사령부 산하 여러 부대에서 소대·중대장을 지냈으며, 1984년 군사학교에서 참모 장교직을 마친 후, 작전본부 장교 및 대륙 사령관직을 지냈다. 1982년 앙카라대학교 정경대 금융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하제페테대학교에서 아타튀르크 원칙과 혁명사 관련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제르바이잔에서 훈련군 사령관으로 재직 시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로부터 명예훈장을, 알바니아에서 무관으로 재직 시 대통령으로부터 황금독수리 훈장을 받았다.

부친 페르지 데니즐리(Fevzi Denizli)와 장인 또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으로 한국전쟁 관련 터키 여단 관련 논문과 저서를 수차례 발간했다. 현재 앙카라 우푸크(Ufuk) 대학교에서 아타튀르크 원칙 및 혁명사교육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저서로 『한국전쟁에서의 터키 여단』, 『한국전쟁-군우리 전투』 등 다수가 있다.

www.koreharbi.com, www.koreanwar-forgottenwar.com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한국전쟁 연구 성과를 터키내에서 공유하기도 했다.

이메일 alidenizlim@yahoo.com.tr

옮김 **이선미**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터키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주한 터키대사관에서 5년간 근무했으며 현재 주 터키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이다. 2014년 터키 앙카라 국립 연극단이 공연한 <1등 28번지 차숙이네> 연극대본을 번역했다.

감수 **이난아**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를 졸업하고 터키 국립 이스탄불대학(석사)과 앙카라 대학(박사)에서 터키문학을 전공했다. 앙카라대학 한국어문학과에서 5년간 외국인 교수로 강의했으며, 현재 계명대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연구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오르한 파묵-변방에서 중심으로』, 『터키 문학의 이해』, 『오르한 파묵과 그의 작품 세계』(터키 출간), 『한국어-터키어, 터키어-한국어 회화』(터키 출간)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 『검은 책』, 『이스탄불』, 『내 이름은 빨강』, 『눈』, 『순수 박물관』, 『하얀 성』, 『세계 민담 전집-터키편』을 비롯해 다수가 있으며, 『한국 단편소설집』, 『이청준 수상 전집』, 『귀천』, 『시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등을 터키어로 번역·소개했다.

해제 **노영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학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주요 연구 업적으로는 『영조대의 한양 도성 수비 정비』, 『한국군사사 7』(공저), 『안보적 관점에서 본 한국현대사』(공저) 및 『양반』(역서) 등이 있다.

터키인이 본 6.25전쟁

KORE SAVAŞI 1950-1953

지음 **알리 데니즐리**(Ali Denizli)

옮김 **이선미**

감수 **이난아**

해제 **노영구**



차 례

『근현대사 번역총서』를 펴내며	8	제8장 _ 중공군의 춘계 공세	67
『터키인이 본 6.25전쟁』 해제	10	제9장 _ 퇴계원리 전투 - 서울 사수	73
머리말	17	제10장 _ 터키 제3여단의 베가스, 엘코, 카슨 전투	79
		제11장 _ 한국전쟁의 심리전	99
제1장 _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과 한국전쟁 이전 정치 상황	21	제12장 _ 전쟁 포로에게 가해진 비인간적 대우	105
제2장 _ 전쟁 발발	25	제13장 _ 한국전쟁 사상자와 전쟁 이후 파병된 터키군	125
제3장 _ 1950년 이전 터키 국내 정세와 터키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 배경	33	제14장 _ 앙카라 학교 설립	129
제4장 _ 터키 제1여단 구성에서 한국행, 그리고 군우리 전투까지의 임무	35	맺는말	139
제5장 _ 군우리 전투	41	참고문헌	153
제6장 _ UN군의 임진강 동쪽 전선으로의 후퇴와 터키 여단의 사수 임무	55	색 인	167
제7장 _ 금양장리 전투	57		

그림 차례

[그림 1] 한국의 38선 지도	15	[그림 26] 적군과 대치 중인 터키군	74
[그림 2] 터키군 사열	19	[그림 27] 터키 여단의 동·서베를린, 베가스, 엘코, 카슨(서부전선) 전투상황도 (1953.5.28~29)	81
[그림 3] 〈미국, 터키에 지원요청〉 포스터	19	[그림 28] 야샤르 에켄 하사	88
[그림 4] 남한군	24	[그림 29] 공병중대장 쉬나쉬 쉬칸 대위	90
[그림 5] 1950년대 터키에 비친 북한군 포스터 〈자칭 인민군을 외치는 괴뢰 북한〉	24	[그림 30] 전사자를 바라보는 터키군	98
[그림 6] 피난 행렬	26	[그림 31] 대구에서 헌병에게 체포된 게릴라군	100
[그림 7] 북한의 침공	26	[그림 32] 터키군에게 체포되어 수용소로 가는 공산포로들	101
[그림 8] 인천상륙작전 전투상황도	29	[그림 33] 전쟁 포로	106
[그림 9] 인천상륙작전	29	[그림 34] 제5호 포로수용소(평택)에 있던 터키군 포로들 중 벨리 아타소이 병장과 전우들	109
[그림 10] 중공군의 전쟁 참여 경로	30	[그림 35] 피해 입은 민간인 모습	125
[그림 11] 한국전에 4,500명의 병력을 파병한다는 터키 밀리엣 신문보도	36	[그림 36] 전쟁 사상자 운구 장면	126
[그림 12] 터키군 파병	37	[그림 37] 미크타트 울루원뤼 소령 묘지	126
[그림 13] 4,500명의 터키군이 터키국민의 명예를 걸고 UN군을 돕는다는 내용의 포스터	37	[그림 38] 부산 UN기념공원 내 터키군 묘역(Ⅰ)	126
[그림 14] 와원 전투상황도	44	[그림 39] 부산 UN기념공원 내 터키군 묘역(Ⅱ)	127
[그림 15] 한국전쟁 참전 당시 터키군	46	[그림 40] 양카라 학교	131
[그림 16] 개천 전투에서 적군과 대치 중인 터키군	49	[그림 41] 양카라 학교 기념촬영	133
[그림 17] 터키군의 사열 및 보고	54	[그림 42] 양카라 학교에서 유수프 귀나이트 하사	138
[그림 18] 금양장리 표지판에 서있는 터키군	57	[그림 43] 터키군 도열	139
[그림 19] 금양장리 전투 포격 장면	59	[그림 44]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작가 더글라스 던컨이 찍은 '영웅 터키군' 사진(『라이프』)(Ⅰ)	142
[그림 20] 터키 여단과 미군	61	[그림 45]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작가 더글라스 던컨이 찍은 '영웅 터키군' 사진(『라이프』)(Ⅱ)	144
[그림 21] 한국전쟁 185·156 고지 공격 전투배치도	63	[그림 46] 터키군 우수부대훈장 수여 장면	145
[그림 22] 용인에 있는 터키군 참전기념비	66	[그림 47] 나지 곽체 중위 유족	146
[그림 23] 터키군 후퇴 상황(1951.4.22~23)	67	[그림 48] 한국전쟁 당시 한 소녀(최민자)와 쉬리만 프랫 대위	150
[그림 24] 메흐메트 괴넨치 중위	69	[그림 49] 터키 양카라 한국공원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비	151
[그림 25] 메흐메트 괴넨치 중위와 전우들	70		

『근현대사 번역총서』를 펴내며

2012년 12월 개관한 이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국립 현대사박물관으로서 균형 잡힌 한국현대사 연구를 통한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활발한 학술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료 수집, 전시, 교육 등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한국 근현대사에 관한 학문적 성과들을 모아 간행하는 발간사업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한국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쓴 『한국현대사 교양총서』 시리즈를 비롯하여, 전문적인 연구 결과물을 관련 학계와 공유하고자 현대사의 주요 쟁점과 주제를 심층적으로 서술한 『한국현대사 연구총서』 시리즈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내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한국 근현대사 관련 외국서적을 발굴하여 국내에 소개하는 『근현대사 번역총서』를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한국 근현대사에 관한 연구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그 내용도 심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언어의 장벽 등으로 인해 그 성과들이 국내에 충실히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현대사 번역총서』는 다양한 언어로 쓰인 한국 근현대사를 다룬 의미

있는 저서들을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세계인들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알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독자들이 더욱 풍성한 모습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도 관련 학계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현대사 번역총서』를 간행하기 위해 귀중한 저서의 번역을 허락해주신 저자와 훌륭한 번역으로 총서를 빛내주신 번역자 및 감수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번역총서를 통해 세계 속의 한국이 갖는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다양한 시각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 연구가 더욱 심화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질정을 바랍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김 왕 식

『터키인이 본 6.25전쟁』 해제

6.25전쟁에 참전한 16개국 중 터키는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1개 여단 규모의 지상군을 파병한 국가로 정전 이후에도 1971년까지 상당 기간 한국에 주둔하며 한국 방위에 기여하였다. 6.25전쟁 중 터키군은 군우리, 금양장리 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에서 큰 전공을 세우며 투르크 전사의 용맹을 떨쳤다. 전쟁 중 터키군의 피해는 741명의 전사자와 2,068명의 부상자를 포함하여 3,216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참전국 중 미국, 영국에 이어 3번째였다. 이처럼 6.25전쟁 중 뚜렷한 자취를 남긴 터키군의 활약과 역할은 그동안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터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6.25전쟁 중 터키군의 활약이 함께 알려졌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엔군 전사의 일부로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6.25전쟁 중 터키군의 참전 과정과 활약에 대해 단독 연구가 현재까지 국내에 단 1편(김진우, 2013, 「6·25전쟁기 터키군 참전에 관한 연구」, 『군사』 87)에 불과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터키군의 입장에서 6.25전쟁과 주요 전투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적지 않았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 번역총서 중 2번째로 간행된 『터키인

이 본 6.25전쟁』(원명 : Kore Savasi 1950-1953)은 2010년 터키에서 출판된 터키군의 6.25전쟁 관련 본격 통사이다. 이 책에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터키의 참전 배경 및 터키 여단의 전쟁 중의 활약, 그리고 6.25전쟁 중 터키군 포로의 실태 등이 터키의 주요 자료와 여러 참전자의 증언을 통해 잘 정리되어 있다. 예를 들어 터키의 6.25전쟁 참전 배경이 NATO 가입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 군우리, 퇴계원 등 터키군이 참전한 주요 전투의 구체적인 상황 및 주요 전투의 전쟁사적 의미 등이 잘 드러나 있다. 이외에도 전쟁 중에 이루어진 심리전과 터키군 포로들의 질서있는 생활모습 등도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소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터키군이 한국의 전쟁 고아를 위해 설립한 앙카라 학교에 대한 내용도 소개되어 있어 터키군의 민사작전 및 한국인과의 관계 등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많이 담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전쟁 통사적 성격과 함께 관련 사료집의 성격도 지닌 매우 소중한 책이다.

『터키인이 본 6.25전쟁』의 저자인 알리 데니즐리(Ali Denizli) 교수는 터키의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각지의 부대에서 지휘관과 참모를 역임한 육군 대령 출신이며 동시에 지난 30여년 동안 6.25전쟁에 대해 집중적

으로 연구하여 『한국전쟁-군우리 전투』 등 10여권의 저서를 펴낸 터키 최고의 관련 분야 전문 연구자이다. 데니즐리 교수는 6.25전쟁에 참전한 장인과 주한 터키군으로 한국에 근무한 부친의 영향으로 6.25전쟁 연구에 평생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6.25전쟁 연구를 위해 스스로 장군 진급을 포기할 정도로 이에 열정을 쏟았다. 현재에는 앙카라의 우푸크 대학교에서 전쟁사 강의 및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 역사학자가 아닌 육군 대령 출신 연구자에 의해 저술되었으므로 이 책은 여타 전쟁 관련 연구에 비해 전투 장면에 대한 묘사 및 설명 등이 매우 구체적인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터키군의 자료를 적극 발굴하고 소개하여 다양한 관련 증언과 함께 당시의 보다 생생한 전쟁 및 전투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이 책은 터키 자료를 통한 6.25전쟁 연구라는 한계로 인해 본문에 일부 숫자상의 오류나 터키 중심적인 해석이 다소 보인다.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터키군의 활약에 대해 이만큼 잘 정리된 책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책은 한국의 6.25전쟁 관련 연구자 및 일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책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출판을 계기로 미국 중심의 6.25전쟁 전쟁사 이해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터키와 한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보다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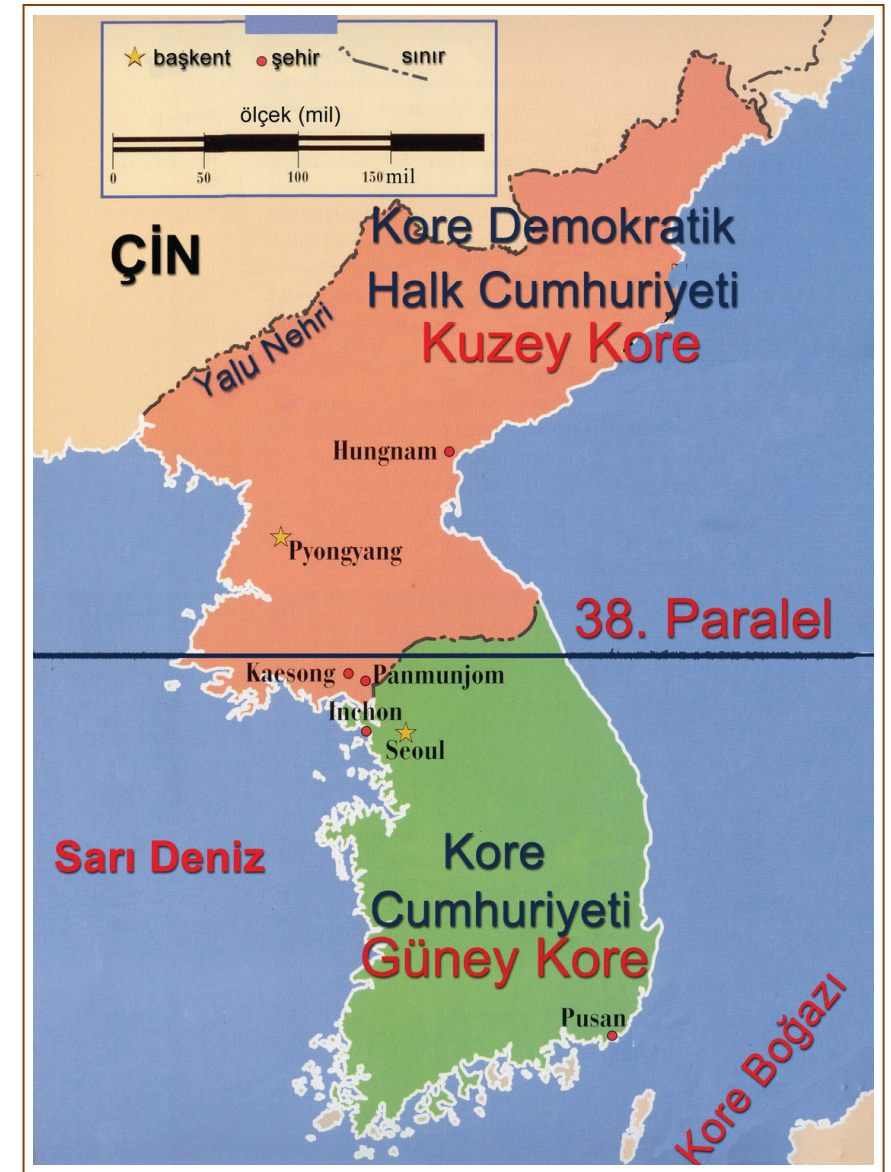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교수

노 영 구

일러두기

1. 원작의 표현을 살리기 위해 공식 용어인 '6.25전쟁' 대신 '한국전쟁'으로 표기하였다.
2. 부대를 지칭할 때에는 '터키 여단' 혹은 '터키 제1여단'을, 일반적인 터키군을 지칭할 경우에는 '터키군'을 사용하였다.
3. 부대 표기는 '국적-번호-단위순'으로 통일하였다(예: 미 제8군, 터키 제1여단).
4. 중국은 당시 통용되던 용어인 '중공'으로 통일하였다.
5. '대한민국'이 공식 용어이나, 북한과 대비되는 경우에는 원작의 표현대로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을 사용하였다.
6. '국군'과 '인민군'이 공식 용어이나, 원작의 표현인 '남한군'과 '북한군'을 사용하였다.
7. 원문에서 38선을 '국경'으로 서술한 것은 모두 '38선'으로 통일하였다.
8. 공식 용어와 저자의 표현이 다른 경우, 가급적 저자의 표현을 살리되 본문 내 주석 등을 통해 부가적인 설명을 하였다. 예를 들어 "'김량장리 전투'가 공식 용어이나, 저자와 터키 현지 표 현을 살리고자 이 책에서는 '금양장리 전투'로 통일하였다."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9. 참고문헌은 저자의 작성 목록을 실었다.

※ 이 책은 6.25전쟁 참전국인 터키의 한국전쟁 연구자 입장에서 6.25전쟁을 서술한 것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그림 1] 한국의 38선 지도

Çin 중공	Kuzey Kore 북한	Inchon 인천	Kore Boğazı 대한해협
Kore Demokratik Halk Cumhuriyeti	Pyongyang 평양	Seoul 서울	Başkent 수도
Cumhuriyeti	38. Paralel 38선	Sarı Deniz 서해(황해)	Şehir 도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Kaesung 개성	Kore Cumhuriyeti 대한민국	Sınır 국경
Yalu Nehri 압록강	Panmunjom 판문점	Güney Kore 남한	

머 리 말

한국은 오래전부터 아시아 대륙과 일본 열도 간 문화의 교량 역할을 한 동시에,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 전쟁터가 되었다. 한국 역사는 외세의 침략으로 가득 찼던 것이다.

북한은 중공과 소련의 지원 및 선동에 힘입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할 목적으로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했다.

UN군이 참전하자 공산주의 지도층은 중공군을 전쟁에 참전시키며 대응하고자 하였고, 얼마 후 이 재앙에 중공군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개입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에서 북한군과 중공군은 드라마의 배우 역할을, 소련은 프롭터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한국전쟁의 원인을 단지 북한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에서 터키군의 역할

터키는 UN군의 한국전쟁 참전 요청에 미국 다음으로 참전 결정을 통보

한 국가이다. 한국전쟁 초반 터키는 5,500명으로 구성된 1개 여단을 파병했다.

UN군이 중공군에 포위되어 전멸될 위기를 막고, 승리를 거둬주어 한국전쟁의 운명과 전세를 바꾼 터키 여단의 활약은 적군을 놀라게 했다. 다른 나라 군인들은 적군 앞에서 후퇴하기도 하였으나, 터키군은 적군을 향해 전진하며 역사상 잊혀지지 않을 큰 교훈을 남겼다.

터키군에게는 한국 땅을 밟은 순간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참전했던 모든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의 임무가 주어졌다. 터키군이 3년 동안 승리한 13개 전투 중 4개 전투는 한국전쟁의 운명과 전세를 바꿔놓았으며, 한국이 주권을 다시 찾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터키군 용사들의 군우리 전투 승리는 어마어마한 업적이며, 군우리 전투 이후 바로 이어진 금양장리 전투¹⁾에서도 역시 성공적으로 승리하였다. 이 전투가 끝난 후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은 터키 여단에게 우수 부대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연이은 승전 이후, UN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터키 여단에게 “터키군은 영웅들 중 최고 영웅이다. 터키 여단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터키군 1명은 10명의 공산군을 죽였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산군들이 한국전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38선 이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한국은 위협에서 벗어났고, 정전협정을 맺게 되었다.

1) ‘김량장리 전투’가 공식 용어이나, 저자와 터키 현지 표현을 살리고자 이 책에서는 ‘금양장리 전투’로 통일하였다.



[그림 2] 터키군 사열



[그림 3] 〈미국, 터키에 지원요청〉 포스터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과 한국전쟁 이전 정치 상황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

한국은 아시아 동쪽에 위치한 반도국가이며, 역사적으로 아시아 대륙과 일본 사이에서 침략의 통로였다. 지정학적 위치상 한국은 오래전부터 아시아 대륙과 일본 열도 간의 커다란 교량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각축장이 되기도 했다. 이는 한반도가 아시아 대륙 방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임을 의미한다. 또한 한반도는 동아시아 지역 바다 중 중요한 세 곳, 즉 동해, 서해, 남해를 면하고 있다.

1945년 일본의 패망은 한국에 명목상의 정치적 자유만을 가져다주었다. 소련과 미국이 각각 북한과 남한에 주둔하고, 남북한 사이에 38선을 그은 것은 한국에게는 재앙의 근원이 되었다.

만주지역 등 중국에 있는 100만 명의 일본군이 항복하자, 귀국하지 않은 일본군의 항복 접수 문제가 남게 되었다. 미 국방장관은 1945년 8월 11일 미 국무부 측에 “38선 북쪽에 있는 일본군의 항복 접수 문제는 소련이, 남쪽에 있는 일본군들의 항복 접수 문제는 미군이 맡아야 한다.”라고 제의

하였고, 미 대통령과 미군 측은 제의를 수락했다.

위 결정은 1945년 8월 15일 마닐라에 있는 극동최고사령관 맥아더 장군과 모스크바에도 전해졌다. 이 결정에 따라 소련 사령관 치스차코프 Chistiakov 대장과 소련군은 1945년 8월 12일 북한에 진주하였으며, 존 R. 하지[John R. Hodge] 중장과 미군은 1945년 9월 8일 남한에 진주하며 일본군의 항복 접수 문제를 맡게 되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소련과 미국에 점령당하고, 갑작스럽게 남북한으로 분단되었다.

미국은 1945년 9월부터 남한에 진주하여 주둔하게 되었고, 1946년 5월 8일에는 소련 통제하의 공산주의 임시정부가 북한의 통치를 맡게 되었다. UN의 결정에 따라 남한에서는 1948년 5월 10일에 총선이 실시되었고,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1945년 8월 15일에 공식적으로 수립되었다. 초대 대통령으로는 이승만이 선출되었다.

한국에서 철수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7년 11월 14일 UN총회의 결정에 따라 소련군과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해야 했다. 소련은 1948년 9월 18일에 소련군이 1948년 12월 안에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UN 측에 통보했으며, 철수 진행과 관련하여 UN 한국임시위원단의 감독도 원하지 않았다. 미군 또한 UN의 이 결정에 따라 남한에서 철수해야만 했다. 실제로 UN 한국임시위원단이 작성한 1949년 6월 29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했으며, 남한군 교육 지원을 위해 500명의 미국인으로 구성된 자문위

원회가 남아 있었다.

소련군이 북한에서 철수할 때, 이들이 북한군의 전력을 키우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했으며, 그들이 실제로 철수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남한군과 북한군, 그리고 전쟁계획

남한군

1950년 6월 남한 육군은 빈약한 6개의 보병사단²⁾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서쪽과 국경을 따라 배치되었으며, 2개의 사단과 다른 부대들은 국내 게릴라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북한군

38선 이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나 정부)을 수립한 소련인들은 강력한 북한군을 조직하기 시작했고, 국경을 폐쇄하여 미국의 접근을 막았다. 북한은 전쟁 시작 초기 13개 보병사단과 제105전차여단, 1개의 전차연대(탱크 73대), 100대가 넘는 전투기, 32척의 군함과 보조 군함 등으로 구성된 전력을 갖추고 있었다.

2) 공식 통계는 8개 보병사단이나, 저자는 6개 보병사단으로 서술하였다.

전쟁 계획

북한군의 전쟁 계획은 UN군 참전 이전에 남한 전체를 함락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군사력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했고, 작전에 적합하게 군대를 배치하지 못했다.

남한군의 경우는 어떠한 전쟁 대비도 없었다. 군은 침범을 막기 위해 주로 서해안 평야 지역에 중요성을 두는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렇듯 북한의 우세한 공격에 맞서 남한은 무방비 상태로 방어태세가 취약했다.



[그림 4] 남한군



[그림 5] 1950년대 터키에 비친 북한군 포스터
〈자칭 인민군을 외치는 괴뢰 북한〉

제 2 장

전쟁 발발

북한의 공격

1950년 6월 25일 오전 11시경 북한은 남한군이 38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군사 15만 명과 소련제 탱크 5,000대³⁾를 이끌고 38선을 넘어 왔다.

UN 한국위원회는 UN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의 전시상황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고, 미국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즉시 소집될 수 있도록 UN 사무총장에게 건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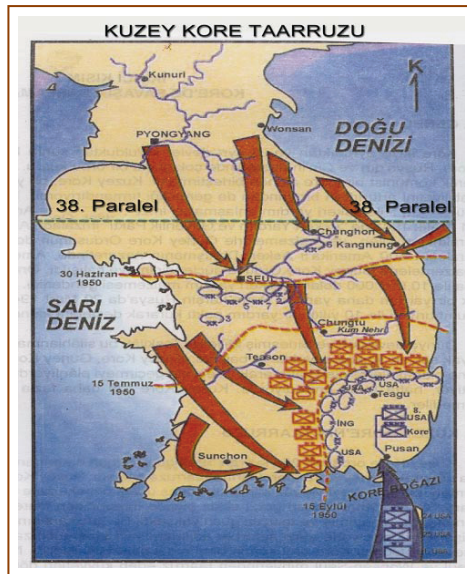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당일인 1950년 6월 25일 14시에 긴급 소집되었다. 소련은 이 회의에 불참했다. 이사회는 찬성 9표, 기권 2표⁴⁾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3) 실제로는 전차 258대, 자주포 176대의 규모로 남침하였다.

4) 1표는 소련의 불참으로 인한 것이고, 다른 1표는 유고슬라비아의 기권이었다.



[그림 6] 피난 행렬



[그림 7] 북한의 침공 Kuzey Kore Taarruzu

Kunuri 군우리
Pyongyang 평양
Wonsan 원산
38.paralel 38선
30 Haziran 1950 1950년 6월 30일
Doğu Denizi 동해
Seul 서울
Sarı Deniz 서해(황해)
15 Temmuz 1950 1950년 7월 15일
İNG 영국
USA 미국
Teason 대전
Taegu 대구
Kore 한국
15 Eylül 1950 1950년 9월 15일
Kore Boğa 대한해협

“북한의 남침은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 전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북한군은 38선 이북으로 철수해야 한다.”

공격을 중단시키고 의견 충돌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UN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북한은 빠르게 진군하여 서울을 비롯한 남한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 공격을 계속했다.

서울 점령과 북한의 남하

북한군은 전쟁을 시작한 지 사흘 만인 1950년 6월 28일에 서울을 점령했다.

미군의 한국 도착

남한이 북한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는 가운데, 미국도 남한을 돕기 위해 병력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에는 4개의 미 사단(제7, 제24, 제25사단과 제1기병사단)이 주둔하고 있었다. 1950년 7월 5일, 북한의 침략을 중단시키기 위해 일본에 주둔 중인 미 제24사단이 최초로 한국에 파병되어 남한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자 남한군의 사기는 충전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14일 남한군의 작전 지휘권을 미 제8군에 이양했다. 이로써 미군과 남한군은 하나의 깃발 아래 연합하여 성공적으로 방어전선을 확보하게 되었다. 북한군은 38선 이남 220km 지역을 하

루에 8km씩 전진하며 27일 만에 낙동강 방어선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남한 전역을 점령했다.

윌튼 H. 위커(Walton H. Walker) 준장은 1950년 7월 26일에 모든 부대를 집결시켜 낙동강을 사수할 것을 명령했다. 맥아더 장군은 7월 27일, 비행기로 대구에 도착하여 “덩케르크(Dunkirk)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군과 남한군은 8월 1일까지 작전상 낙동강으로 후퇴했고, 이 전선은 일명 위커 라인이라고 불린다. 미군은 이 전선의 남서부를, 남한군은 북동부를 방어했다.

부산 교두보 전투

북한군은 1950년 7월 말 대규모 병력에 힘입어 남한군과 지원 파병된 3개의 미 사단을 대구-마산 북서부에서 왜관까지 낙동강 후방으로 후퇴시켰다. 부산 해안에서 북한군은 남한의 주요 항구를 점령하여 위커 장군 휘하 군대를 바다로 밀어붙이고자 했다.

인천상륙작전

한 달 반 동안 지속된 북한군의 공격에도 부산 교두보 지점 전체를 점령당하지 않은 것은 UN군에게는 큰 성과였다. UN군 사령부는 작전을 세워 대규모 전략에 맞서 공격을 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작전은 UN군 사령부가 해양과 상공을 장악함으로써 북한군의 후방에 상륙하는 것이 가



[그림 8] 인천상륙작전 전투상황도

Doğu Denizi 동해
Inchon 인천
Sarı Deniz 서해(황해)
A Amerika askeri 미군
K Kore askeri 남한군



[그림 9] 인천상륙작전

능했다. 상륙 작전을 위해 가장 적합한 곳으로 한국의 서해안에 위치하며 모든 도로가 연계되는 서울 근처에 있는 인천 연안이 결정되었다.

인천상륙작전은 일본에서 별도로 구성된 군대로 1950년 9월 15일 아침 시작되었다(미 제1해병사단, 미 제7보병사단, 남한 4개 해병대대, 남한 제17보병연대). 인천상륙작전으로 한국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상륙작전은 261척의 군함으로 대성공했다. 남한군과 UN군은 열흘간 격렬한 혈전 끝에, 1950년 9월 28일 수도 서울을 탈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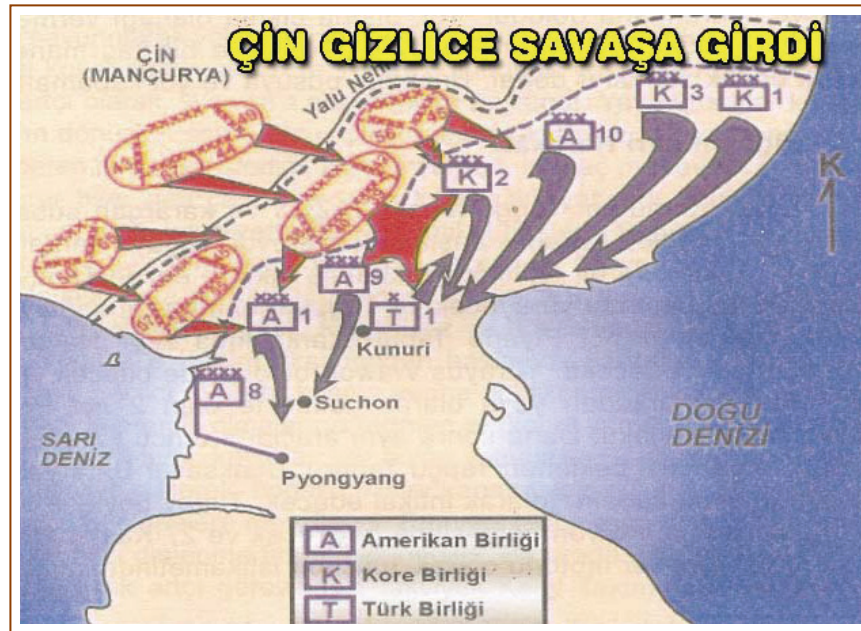
북한군의 전세는 매우 불리해졌다. UN군의 인천상륙으로 남쪽에 있는 모든 북한군 부대 간의 연결로가 차단되고, 무기는 모두 남한군에게 넘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세가 역전되었다. UN군은 중국 접경 지역까지 도달했다.

북한 지역 수복을 위해 미 제1군단, 남한 제2군단, 영국 제27여단, 터

키 제1여단으로 구성된 제8군은 1950년 11월 24일 중국 접경 지역 공격에 나섰다.

UN군이 북쪽으로 진군하자 중공이 급작스럽게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 1950년 11월 26일 UN군은 중공군의 공격에 맞닥뜨렸고, 우익에 있는 남한 제2군단은 덕천과 그 동쪽 지역으로 후퇴해야만 했다. 남한 제2군단의 후퇴로 제8군의 오른쪽이 적군의 공격에 노출되었다.



[그림 10] 중공군의 전쟁 참여 경로 Çin gizlice savaşa girdi

Çin(Mançurya) 중국(만주)
Kunuri 군우리
Suchon 순천

Pyongyang 평양
A Amerika Birliği 미군
K Kore Birliği 한국군

T Türk Birliği 터키군
Sarı Deniz 서해(황해)
Doğu Deniz 동해

적군은 이 상황을 이용하여 덕천-군우리 길을 따라 서쪽으로 전진하며 청천강에 이르렀고, 강을 따라 황해까지 전진할 경우 제8군 후방을 포위하게 될 터였다. 적군과 팽팽한 접전을 벌이던 제8군은 청천강 남쪽으로 후퇴하기 위해 적군의 전진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적군의 전진을 차단할 강력한 병력이 필요했으나, 모든 군사가 전선에 배치되어 적군과 팽팽한 접전 중에 있어 이에 투입할 군사력도 없었다. 적군의 전진을 차단하기 위한 임무는 1950년 11월 26일 오후 군우리 남쪽으로 출발한 터키 제1여단에게 주어졌다. 터키 여단은 즉시 덕천 방향으로 전진하였고, 1950년 11월 26일~27일 밤을 와원에서 보냈다.

이스마일 하크 인제오올루 İsmail Hakkı İncoğlu 대령은 덕천으로의 이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덕천으로 가는 길에 적군을 피하며 아군 사이에 숨길 원하는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모두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다. 모두 아군으로 보였다. 누가 북한 간첩인지, 누가 남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빵과 물을 주기도 했다.”

1950년 이전 터키 국내 정세와 터키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 배경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첫째, 터키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쟁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소련의 위협 가능성과 터키 영토로의 팽창 시도에 맞서 터키는 다른 강대국의 도움이 필요했다. 터키가 소련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우려가 아니었다. 주지하듯이, 소련 정부는 1939년 모스크바를 방문한 터키사절단을 통해 터키에 대한 그들의 바람을 전한 바 있었다.

몰로토프^{Molotov} 소련 외무부 장관은 1945년 6월 당시 모스크바 주재 터키 대사였던 셀림 사르페르^{Selim Sarper}와의 면담에서 터키가 소련과 합의하고 싶다면 소련의 요구를 수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요구는 다음과 같다.

- 1921년 3월 16일 체결된 모스크바 협정에 따른 터키-소련 국경을 소련에 유리하게 재정비한다.
- 터키와 소련이 공동으로 보스포루스해협을 지키고, 이를 위해 터키

는 소련 측에 보스포루스해협에 있는 해군 기지 및 육군 기지를 제공한다.

- 변경 항목들은 보스포루스해협 통치를 규명한 몽트뢰 조약에 의거하여 터키와 소련 간 상호 합의에 의한다.

터키 정부는 국경 안전과 국가의 민주 통치를 위해 터키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터키에 새 정부가 구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공격을 평화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1950년 6월 27일에 한국 국민들을 돕기 위해 회원국을 소집했다.

터키는 한국전 관련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내린 모든 결정을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UN군에 5,500명의 병력을 지원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과 관련하여 당시 멘데레스Menderes 터키 총리는 “터키의 NATO 가입에 가교 역할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터키 정부는 한국전 파병 결정이 터키의 NATO 가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제 4 장

터키 제1여단 구성에서 한국행, 그리고 군우리 전투까지의 임무

여단 구성 준비와 교육, 에티메스곳Etimesgut – 앙카라Ankara 에서 병력소집

1950년 7월 25일 터키 정부는 침략당한 한국 국민들을 돕기 위해 1개의 터키 여단을 한국으로 파병할 준비가 되었다고 UN 안전보장이사회 측에 알렸다.

터키는 미국 다음으로 한국으로 파병 결정을 내린 국가였다. 한국전쟁에 참전할 터키 여단은 장교 259명, 관리자 22명, 부사관 395명, 병사 4,414명 등 총 5,090명으로 구성되었고, 1950년 9월 19일~20일 앙카라 에티메스곳Ankara-Etimesgut에서 이스켄데룬Iskenderun으로 이동했다.(전쟁 중 이 참전 인원은 5,500명으로 완결되었다.)

터키 여단이 한국으로 이동할 무렵 한국전쟁의 전시 상황

UN군이 1950년 9월 15일에 개시했던 상륙작전의 결과, 북한군은 9월 22일부터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인천에서 기력이 다한 북한군은



[그림 11] 한국전쟁에 4,500명의 병력을 파병한다는 터키 밀리엣 신문보도

거의 다 흩어지고 대부분은 숲 속 또는 산으로 도망가는 등 목숨을 부지하는 데 급급했다.

이스켄데룬에서 한국으로 항로 이동

터키 여단을 실은 다섯 척의 배는 수에즈 운하-홍해-바브엘만데브해협-스리랑카-싱가포르-필리핀-타이완 항로를 거쳐 21일 만에 부산항에 도착했다. 터키군은 한국 땅에 자랑스럽게 발을 디뎠다. 부산항에 하선한 터키군의 당당한 자세와 자부심에 찬 눈빛에서 그들의 전력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에서 터키군에게 주어진 첫 임무는 대구와 대전 사이 산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수시로 아래로 내려와 공격하는 공산주의 게릴라들을 찾아 제거하여 도로와 교량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림 12] 터키군 파병



[그림 13] 4,500명의 터키군이 터키국민의 명예를 걸고 UN군을 돕는다는 내용의 포스터

터키 여단의 서울 서북부 장단 지역 사수 임무

1950년 11월 7일에 맥아더 작전사령부로 전달된 1950년 10월 25일자 명령에 따르면, 터키 제1여단은 미 제8군에 예속된다는 것이었다. 미 제8군 본부는 당일 18시 10분 전화로 터키 여단에게 서울에서 북서부 방향으로 46km 떨어져 있는 문산 지역을 사수하고, 게릴라군을 수색하여 제거하는 임무를 하달했으며, 1950년 11월 10일에 북쪽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미 제25사단 사령부 지휘하에 배치될 것임을 알려왔다.

터키 여단의 장단 지역 진입

터키 여단은 1950년 11월 10일 아침 대구를 출발하여 대전-조치원-수원-서울을 거치는 육로로 이동했다. 이 지역에서 터키 여단은 미 제25사단의 지휘하에 있게 되었다.

터키 여단은 사리원 지역에 있는 4,200명의 적군을 제거하라는 임무를 받고, 11월 15일~19일 사이 개성 북쪽과 동북쪽에 있는 예성강과 임진강 사이에서 게릴라들과 교전을 벌였다. 터키 여단은 이 교전에서 공산군 게릴라 25명을 죽이고, 45명을 생포했다.

터키 여단의 군우리 지역 이동

터키 여단은 필요시 미 제9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1950년 11월 22일에 군우리 지역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터키 여단의 포병대는 미 제2사단 지휘 아래에 있었다. 당시 미 포병의 예비병 임무를 맡았던 케말 알칸(Kemal Alkan) 중위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우리 포병대대는 미 포병대를 보강하기 위해 1950년 11월 22일 밤에 미 포병대에 합류했다. 내가 속해 있던 제24연대의 한 부대는 전체가 흑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부대의 부대장과 소대장이었던 장교들은 백인이고, 몇몇은 혼혈 장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백인 중 한 명이 나였는데, 그곳에서 내 암호명은 투 원(two one) 아흐메트였다.”

터키 여단의 참전 이전 상태

이즈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압록강에 근접한 미 제1기병사단과 그 동쪽에 있던 남한 제2군단의 1개 사단이 적군의 거센 공격을 받았던 것이다. 남한군은 흩어지고, 미 제1기병사단은 600명 이상 목숨을 잃고 불가피하게 후퇴했다. 동쪽 연안에 있던 제10군단과 남한 사단들 중 일부도 공격을 당했다. 이어지는 적군의 공격에 UN군은 당황했다.

10월 13일부터 한 달 열흘 동안 30만 명의 중공군이 압록강 이남으로 넘어와 UN군의 맞은편에 자리 잡았다. 5만 명이 넘는 북한군과 15만 명의 게릴라군을 합하면 약 50만 명의 적군이 UN군 앞에서 공격 태세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제 5 장

군우리 전투

군우리 전투는 지연작전, 포위망 뚫기, 탈출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전투로 터키 여단은 적군에게 포위당한 UN군이 전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군우리 전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터키 제1여단의 군우리 소집

1950년 11월 26일 시작된 중공군의 공격으로 전세는 UN군에게 불리해졌고, 미 제8군의 우측과 후방이 적군에 포위될 수도 있었다.

미 제9군단장 쿨터Coulter 소장은 11월 26일 15시 30분 군단 작전본부를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터키 여단장에게 조금 전 제8군 사령관과 전화통화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남한 제2군단이 후퇴하고 있다. 덕천 지역도 적에 포위되었다. 적군은 군단의 오른쪽을 위협하고 있다. 터키 여단은 군우리-덕천 길로 이동하여 덕천을 점령하라.”

그러나 이 명령 24시간 후 무선으로 전달된 명령에는 그곳의 일반적인 상황과 아군들의 이동 경로와 관련된 정보는 없었다. 왜냐하면 군단 사령관 또한 당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알려진 바로는 UN군은 전략적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9군단은 터키군을 보안 병력으로 보냈던 것이다. 터키 여단은 제9군단 사령부 제2사단에 예속되었다.

미 제2사단의 사단장, 부사단장, 고급 장교 어느 누구도 제2사단에 예속한 터키군을 찾지 않았고, 터키군은 전투 상황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터키군은 한국 땅에서 치르게 될 첫 번째 전투에서 적군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이 남겨지게 되었다.

터키 여단의 이동

1950년 11월 26일 18시에 이동을 시작한 정찰부대에 이어 5분 후 여단의 일부는 도보로, 일부는 전차로 이동을 시작했다. 터키군은 조양면에 자정이 넘어 도착했고, 1950년 11월 27일 3시까지 휴식을 취했다.

1950년 11월 27일 14시 30분경 미 제9군단은 무선으로(여단 내 미 통신 대위 로렌조 **Lorenzo**가 컨트롤하던 미 무전기)로) 여단 사령부 측에 2시간가량 지연되었던 명령을 내렸다. “덕천으로 가지 말고, 어젯밤 트럭에서 내렸던 장소에서 1만 야드(9,144m) 동쪽에 머물며 길을 봉쇄하라. 청상리에 1개 연대 규모의 적군들이 있다.” 명령은 이것이 다였다. 이 명령에는 군단의 목적, 특히 제2사단의 상황, 한국 군단의 최근 상태에 관련된 어떤

한 정보도 없었다.

터키 여단 사령부는 군단으로부터 내려진 도로 봉쇄 임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매우 경사지고, 삼림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그 지역은 포병과 중장비 무기들을 실은 전차부대가 홀어져 방어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군단 명령에서 언급된 이 지역으로 접근 중이라던 적군 연대 또한 터키 여단에게 위협 요소였다. 이러한 이유로 여단 지휘관은 군단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할 수 없었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안고, 조금 더 뒤편에 있는 청면 부근으로 후퇴하여 그곳에서 군우리-덕천 길을 봉쇄하기로 결정했다.

와원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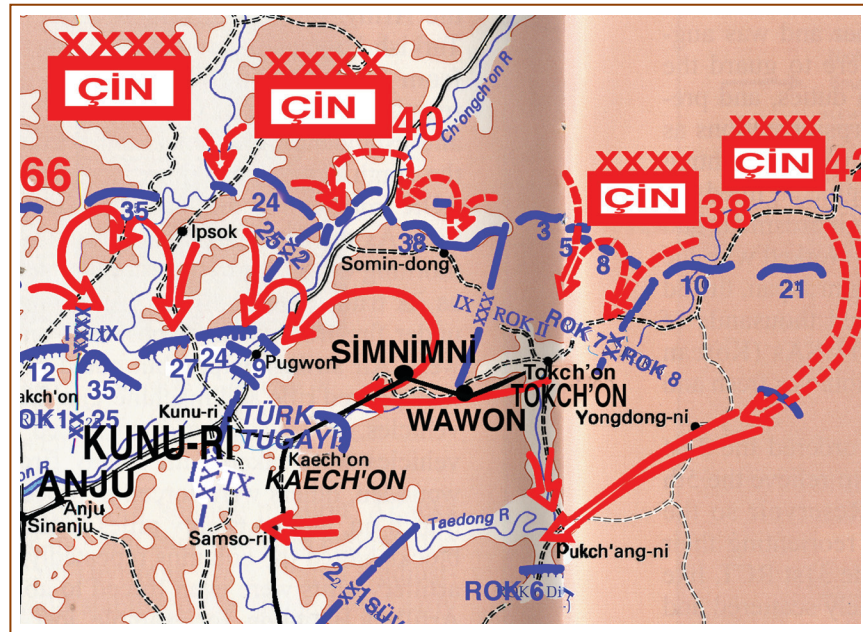
적군의 습격을 받은 터키 정찰대

터키 여단의 후위부대 역할을 맡은 정찰대는 1950년 11월 27일~28일 새벽 1시경 철수하던 중 산길에서 적군의 공격을 받았다. 용감한 터키 군인들은 밤새 격전을 벌여 적군의 전진을 막았고, 여단이 전투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다. 터키 여단은 이 교전에서 2명의 장교와 4명의 병사만이 살아 돌아왔다. 이 전투에서 터키군은 대부분 사망하거나 포로로 잡혀갔다. 정찰대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던 여단 내 미 통신 대위 로렌조도 이 포로에 속해 있었다. 이 전투는 터키와 중국이 수백 년 만에 맞붙은 교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전에서 전사한 군인들은 마땅히 그 공을 기릴 만하다. 그들은 매

우 어리고, 경험이 없어 실수도 했다. 그러나 엄격하게 훈련되어 있었고, 부대의 사기도 매우 높았다. 그들은 살기 위해 무기를 머리 위로 들고 항복하며 포로가 되지 않았다. 탄약이 소진될 때까지 영웅에 걸맞은 용기로 가족, 국가, 군복, 친구들을 위해 싸우다 전사했다. 그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적군들은 와원에서 야간에 쉽게 거둔 승리의 기쁨으로 자만에 빠져 무모한 공격을 계속했다. 보초 한 명당 20~30명의 적군이 들이닥쳤다. 적군들



[그림 14] 와원 전투상황도

Çin 중공군	Sinanju 신안주	Wawon 와원
Ipsok 입석	Samsori 삼소리	Taedong R 대동강
Kunuri 군우리	Kaechon 개천	Tokchon 덕천
Anju 안주	Simnimni 신림리	

은 승리를 확신한 나머지 항복하는 것처럼 하며 아군 쪽으로 걸어왔다. 그러나 승리의 웃음은 한순간에 끔찍한 죽음의 웃음으로 바뀌었다. 주검들과 부상자들이 땅에 뒹굴고, 살아 있는 자들은 격렬한 비명을 지르며 주변 도랑으로 몸을 던졌다. 넓은 평원은 중공군들의 시체로 가득 찼다.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공산군들은 공격의 물살을 다시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지속되는 적군들의 공격으로 전선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 터키 여단 규모의 열 배가량 되는 적군이 아군을 에워쌌다. 맥아더 사령관은 작전 지도에서 터키 여단을 엑스(X)자로 지웠다. 그가 옳았다. 포위된 군대가 전멸의 위기에서 벗어난 일은 그 어떤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터키군 한 명당 8~10명의 적군을 죽여야만 적이 둘러싸고 있는 포위망을 뚫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터키군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UN군 총사령관은 터키 여단이 전멸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한국전쟁사 문서에 따르면, 타흐신 야즈즈 Tahsin Yazıcı 장군은 위협을 제때 감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다. 터키 여단이 이 위협을 저지하지 못했다면 공산군들은 서해까지 들어와 신안주 비행장 지역을 점령했을 것이다.

신림리 전투

중공군들에게 둘러싸인 터키 여단에 와원에서 신림리로 후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터키군은 이 후퇴 명령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터키 사령관은 놀라면서 “후퇴? 왜 우리가 후퇴해야 하지? 우리는 여기서 수많은 중공군을 죽이고 있는데.”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림 15] 한국전쟁 참전 당시 터키군

페흐렌바흐 **Fehrenbach** 미 소령은 그의 저서에서 “시커먼 얼굴에 소총을 든 터키군들은 후퇴할 것을 거부했고, 장교들은 머리에 쓰고 있던 철모를 벗어 땅에 던졌다.”라고 서술했다.

신립리로 철수하여 방어 준비를 하던 터키 여단은 1950년 11월 28일 ~29일 자정 무렵 신립리 마을과 그 주변에서 갑작스럽게 기관총의 공격을 받았다. 이는 터키군이 신립리에 도착하기 전 적군들이 그곳에 먼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적군들은 야밤의 어둠을 이용하여 제1, 제2 대대가 확보하지 않은 계곡에서 조용히 전진하며 신립리까지 들어왔거나, 하루 종일 이 마을로 오는 민간인 복장을 한 피란민 행렬에 섞여 마을 혹은 그 주변에서 잠복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북쪽의 가파른 지형을 통해 물

래 숨어든 것이 분명했다.

신립리 마을과 그 주변에 있던 적군의 공격으로 터키 여단의 일부 전차와 물자들이 파괴되었다. 중공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당황한 일부 부대는 어둠 속에서 서로 뒤섞인 채 후퇴하기 시작했다. 터키군은 사방이 적군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나 용감하게 맞서 싸웠고, 미 탱크의 공격 가세로 적군들을 피해 무사히 후퇴할 수 있었다.

개천 전투

1950년 11월 29일 오전 9시경 미 보병연대와 탱크 부대가 터키 여단을 지원하기 위해 개천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이 군대는 미 제38보병연대장 지휘하에 10시경 도착했다. 터키 여단은 제38보병연대장에게 신립리 남쪽과 북서쪽에 있는 군대를 구출하기 위해 제한된 공격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 연대장은 이 공격을 할 수 없으며, 자신들의 임무는 단지 미 제2사단의 오른편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제38보병연대의 임무는 사실 터키 여단이 수행하고 있었다. 초기에 이 사단 그리고 미 제9군단과 다른 UN군이 포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터키 여단을 덕천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미 연대장의 부정적인 반응에 터키 여단장은 부족한 병력과 희박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방 병력 구출 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미 연대는 개천 북쪽에 있는 능선에 진지를 구축했다.

적군들의 공격으로 신립리에서 철수한 터키 여단은 개천에서 다시 한

번 적군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 태세를 갖추어야 했다. 터키 여단의 철수로 개천에서는 큰 소란이 일어났다. 신립리에서 개천으로 뻗어 있는 7~8m 너비의 도로는 피란민들과 철수 중인 UN군, 군용차들로 가득 찼다. 인파들이 홍수처럼 밀려가고 있었다.

철수 중이던 군인들 중 일부는 부대에서 떨어져 나갔고, 군사들의 사기는 저하되었다. 터키 여단장 타흐신 야즈즈 장군은 약 150명 정도 군인들 사이로 들어가 “조국과 터키인들의 눈이 그 순간 터키군만 쳐다보고 있다. 필요하다면 함께 목숨을 내놓으며 국가의 명예와 영광을 지키는 것이 군인과 국가의 의무이며, 이 희생이 수백 명의 터키 형제들의 목숨과 군대를 패배에서 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공산주의자들이 승리의 축제를 열 것이다.”라고 말했다.

터키군은 여단장의 말에 다음과 같이 소리치며 호응했다.

“장군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버터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터키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승리의 종을 울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장군님을 믿습니다. 장군님도 저희를 믿으십시오. 알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성적으로 행동한 터키 여단장의 결정은 적중했다. 그의 이 적절한 결정으로 끊임없이 흐르는 인파는 개천에서 부분적으로 멈추었다. 무질서했던 부대는 이곳에서 재정비하며 새롭게 방어선을 만들었다. 제1, 제2대대는 신립리 주변에서 하룻밤 저항하고 후퇴하다 이 여단에 합류했다.

17시에 미 사단은 군용차를 가지고 와 철수하기 시작했다. 미 연대는 철수와 관련된 정보를 터키 여단에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북쪽 방어선이



[그림 16] 개천 전투에서 적군과 대치 중인 터키군

무너진 터키 여단은 또다시 홀로 남아 적군에게 양쪽으로 포위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터키 여단은 1950년 11월 28일~29일 와원, 신립리, 개천 전투에서 이틀 동안 적군을 상대로 시간을 끌었다. 11월 27일부터 총 사흘간 연은 이 소중한 시간으로 미 제8군은 철수할 기회를 얻었다. 터키 여단에게 주어진 원래 임무가 철수할 시간을 만드는 것이었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제2, 제3보병대대는 1950년 11월 29일 17시 30분경 여단으로부터 철수 명령을 받았다. 제1대대는 후방에 남아 적군들을 상대로 시간을 벌었고, 다른 대대의 뒤를 따라 철수하기 시작했다.

일반적 상황으로 봤을 때, 군우리 지역은 여단이 적군들을 상대로 시간을 벌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 당시 제1, 제3대대는 대대장을 선두로 군

우리에서 집결해 있었고, 그곳에서 명령을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포병대대는 그 전에 안주 길을 통해 평양으로 갔다. 제2대대도 일부는 안주에서, 그 나머지는 순천에서 철수했다.

평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하나는 서쪽의 안주를 통해, 다른 하나는 남쪽 방향에 있는 순천 협곡을 지나야 했다. 여단장은 안주를 통하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정보를 새로 입수하게 되었다.

순천 협곡은 이틀 전부터 적군이 통제하기 시작했다. 미 제2사단이 북쪽에서, 영국 여단이 남쪽에서 가한 공격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우리 사단⁵⁾은 안주 방향으로 전진하다 순천 협곡에서 잠시 숨을 고른 후, 순천 협곡에 자리 잡은 적군을 상대로 공격을 시작했다. 미 사단과 탱크가 공격하자 협곡의 길이 열렸다.

터키 사단의 총검은 이곳에서도 제 역할을 다했다. 꼼짝 못하고 있던 제2사단이 순천 협곡을 통과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다. 터키 여단이 '군우리 전투'라고 명명한 이 싸움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터키 여단은 1950년 12월 1일 아침 무렵 평양에 도착했다. 살아 돌아온 터키 여단의 군인들이 재회하는 장면은 매우 진심어렸고 감동적이었기에 그곳에 있던 미군들의 눈시울마저 붉게 했다. 우리 군인들 모두는 장교들의 손을 부여잡고 껴안고 뺨에 입을 맞추며 반가움을 표했다.

어느 미 군의관은 “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전선에 있었다. 여

5) 여단의 오기

러 나라 사람들을 봐왔지만, 병사와 장교들이 이렇게 서로를 아끼는 것은 터키군에게서 처음 본다.”라고 말했다.

1950년 12월 2일 제9군단 지시에 따라, 가장 많은 인명 손실을 본 터키 여단과 미 제2사단은 부족한 병력을 보강하기 위해 1950년 12월 3일 개성으로 이동했다. 터키 여단은 소사리로 보내졌다.

1950년 12월 8일 군대의 손실과 피해에 관련된 상황 파악이 시작되었다. 1950년 11월 26일부터 1950년 12월 6일까지 터키 제1여단의 피해 상황은 병력 15% 손실, 무기 및 차량은 70% 손실이었다.

이 전투에서 터키군이 피해를 준 적군의 사상자 규모는 약 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숫자를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터키군과 맞선 중공군의 제38부대 규모가 약 6만 명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터키군이 철수를 도왔던 미 제2사단의 사상자는 4,849명이었다. 철수 시 터키 여단의 희생으로 미 사단의 희생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군우리 전설에 대한 국내외 메아리

월튼 H. 워커^{Walton H. Walker} 미 제8군 사령관은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제2사단과 함께 이동하던 터키군이 영웅 같은 용맹으로 4일간의 시간 지연 작전을 성공시켜 미군이 포위되어 전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1950년 11월 28일 밤 터키군은 와원 주변에서 1개의 사단으로

추정되는 적군에게 포위되었다.

터키군은 용감하게 싸우며, 백병전에서는 총검으로 약 200여 명의 적군을 죽였다. 이틀간의 교전 이후, 적군은 이 지역에 투입 병력이 6개의 사단 규모임에도 우리 전선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터키군은 제2사단과 함께 미 제8군이 포위되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주었다.”

콜린스^{Collins} 미 육군참모총장의 성명은 터키군을 아래와 같이 평가했다. “터키군은 한국전쟁에서 예상보다 큰 성공을 이루었다. 그들의 용맹성을 높이 평가한다.”

윌튼 H. 워커^{Walton H. Walker} 미 제8군 사령관의 1950년 12월 13일 터키 여단 방문 시 연설은 터키 여단에 대한 칭송 일색이었다.

“영웅 터키 아들들아, 나는 우리 부대와 미국 국민들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나는 여러분에게 군우리 지역 임무를 맡기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적군의 공격으로 갑작스럽게 아주 과중한 임무를 맡길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여러분은 주어진 임무를 최상으로 이행했다.

만약 여러분이 적군을 막기 위해 영웅답게 맞서 저항하지 않았다면, 우리 부대는 포위되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져, 어쩌면 전멸되었을 것이다. 여러분의 전력을 높이 평가하며 감사한다. 여러분이 우리 군의 매우 소중한 구성원인 것이 자랑스럽다.”

『타임^{Times}』지의 한국전쟁 기사 중 일부에서는 “한국전쟁에서 뜻밖에 놀라운 것은 중공군이 아니라 터키군이었다. 터키군이 전투에서 보여준 용맹을 표현할 만한 단어를 찾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라고 터키군을 서술하였다.

군우리 전투 결과

한국인들은 청천강 전투, 터키 여단은 군우리 전투라고 명명한 이 전투는 11월 25일 저녁 무렵 시작되어 12월 1일까지 밤낮으로 계속되었고, 한국전쟁 역사상 가장 격렬하고, 파괴적인 전투가 되었다.

UN군의 오른쪽을 맡고 있는 남한 제2군단 전선이 무너지면서 생긴 틈새를 막기 위해 보내진 영웅 터키군이 이루어낸 군우리 전투 승리는 어떠한 칭찬으로도 부족하다.

터키 여단은 ‘기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터였다.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제9군단의 얽혀버린 매듭을 푸는 임무가 터키군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한국전쟁의 모든 전투 중 가장 많이 기려지는 전투가 바로 터키 여단이 참전한 ‘군우리 전투’이다.

마셜^{Marshall} 장군은 군우리 전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터키 여단은 미 제8군에게 황금 같은 사흘을 벌여주었다. 미 제8군이 순차적으로 철수해야 할 시간을 벌지 못했더라면, 우선 군우리로부터 후퇴할 수밖에 없는 제2사단, 제25사단에 이어 제1군단의 후방이 공격당해 군 전체가 포위당하고 전멸당할 수도 있었다. 전멸은 면한다고

해도 아주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스마일 하크 인제오흐루 대령은 군우리 전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 터키군이 군우리에서 그와 같은 전투 성과를 이루어내지 않았더라면, 10만 명에 달하는 UN군이 포위되어 UN과 미국의 명예가 땅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림 17] 터키군의 사열 및 보고

제 6 장

UN군의 임진강 동쪽 전선으로의 후퇴와 터키 여단의 사수 임무

터키군은 평양에 도착한 1950년 12월 1일부터 대규모 손실을 보강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전투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공군의 공격이 극심하게 지속되었기 때문에 평양에서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

터키 여단은 개성보다 더 남쪽으로, 서울과 서해 연안 항구인 인천 사이에 있는 소사리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터키 여단은 미 제8군의 예비 병력 임무를 맡았고, 이후 이곳에서 이동하여 김포반도를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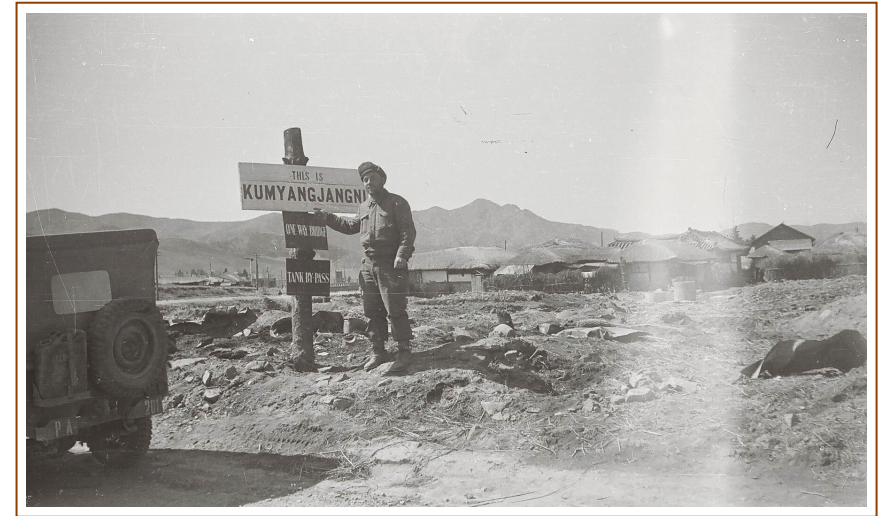
중공군들의 공격은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적군들은 서울을 점령한 이후 모든 전력을 한강 이남으로 집중했다. 오른쪽에 있는 적군의 전진은 심각한 위험을 낳았다.

적군은 오른쪽에서 제8군을 공격했고, 후방에서 수천 명의 게릴라군의 공격까지 가세하게 되자 아군은 완전히 포위될 상황에 몰렸다. 터키 여단 사령관은 적군이 계획하는 대규모 포위망을 애초에 짐작하고, 부대를 안성을 지나가는 강 오른쪽 약 100km 지점까지 후퇴시켰다.

미 제8군은 1951년 1월 3일부터 안성을 수호하기 위한 수비진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이 대규모 철수 시 터키 여단은 그 지휘하에 있던 제25사단과 함께 안성 수비 지점에 도착하였고, 1951년 1월 6일에는 천안 지역에 예비 전력으로 배치되었다.

제 7 장

금양장리 전투



[그림 18] 금양장리 표지판에 서있는 터키군

금양장리 전투가 한국전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듯 그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터키군은 군우리 전투에서 소규모로 곳곳에서 벌인 방어전과 반격으로 수만 명의 UN군을 재앙에서 구했고, 금양장리 전투에서는 이길 수

없다고 여겨지던 중공군을 예상과는 반대로 이기고, 중공군이 도망치게 만들었다.

1월 26일에 금양장리에서 156고지에 있는 전선을 끈질기게 수호하던 적군이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내고 수백 명이 포로로 잡히는 등 비참한 상황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되자, 이는 UN군 사령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 철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승리의 희망이 새롭게 솟아올랐던 것이다.

리지웨이Ridgway 미 제8군 사령관은 적군의 향후 의도와 작전을 알아내기 위해 정찰을 하거나 포로를 잡아들였으며 수시로 적군을 공격하고, 최종 주도권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1월 중순 일련의 정찰감행을 터키 여단에 지시했다.

이 임무를 위해 터키 여단장은 1951년 1월 24일 10시 45분 각 부대장들을 소집하여 지시받은 전투 명령에 따라 행진 명령을 내렸다. 터키 여단은 먼저 안성읍에서 집결할 예정이었다. 행군 중대는 이 마을로 가기 위해 천안에서부터 성원리까지 물자 공급 경로를 따라가다 안성으로 진입할 예정이었다. 그 임무는 미 제1군단이 전선에서, 제25사단 제35연대와 함께 오산에서 수원 방면으로, 터키 여단과 함께 송전리-오산리 전선에서 북쪽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공격작전을 위해 우선 집결지를 점령하고, 여단 전체는 1951년 1월 25일 7시 30분부터 금양장리 남쪽과 서남쪽에 있는 산등성이와 꼭대기를 급습, 정찰하는 것이었다.

이 지역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지점들은 185고지, 156고지와 그 오른쪽에 있는 금양장리읍이다. 터키 여단장은 병력의 1/3로는 적군 전선



[그림 19] 금양장리 전투 포격 장면

의 동쪽 방면을, 2/3로는 이 전선의 서쪽 방면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사전 준비가 어찌되었든 전투의 목표는 적군의 요새와 참호를 정면에서 공격하는 것이었다. 어차피 전투 결과는 총·검으로 판가름 날 것이었다. 터키군의 상태는 좋았고, 사기도 매우 높았다.

1951년 1월 25일의 목표는 185고지와 이 고지의 서쪽 방면에서 계속 쪽으로 내려가는 산등성이였다. 1951년 1월 25일에 제241터키 연대는 적군의 대대를 맹공격하고 총·검과 폭탄으로 적군을 격퇴했다.

1951년 1월 26일의 목표는 156고지였다. 156고지에 있는 적군들의 참호에 지상과 상공에서 발사하는 폭격들은 효과가 없었다. 적군들의 진지는 매우 튼튼했다. 참호는 나무 몸통과 두꺼운 흙으로 겹겹이 덮여 있었다.

적군의 참호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

다. 한 병사가 총안(콘크리트 벙커의 창문들)을 충격하면 다른 병사는 다가가 총안 내부로 폭탄을 던지거나, 총안을 미사일이나 기관총으로 파괴해야만 했다. 날이 어두워지고 적군들의 야습이 시작되기 전에 이 작업을 끝내야 했다. 제10부대의 한 소대가 사령관의 지휘로 최후의 공격을 펼친 결과 이 고지는 17시 30분에 완전히 점령되었다.

그날 적군과의 교전으로 발생한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작업하던 중 군우리 전투 당시 희생된 한 부사관이 작성한 노트가 발견되었다. 터키군과 금양장리에서 접전했던 적군들이 군우리에서 접전했던 제38중공군과 제150사단 제2연대 소속군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사실은 모든 터키 여단에 알려졌으며, 복수할 기회가 왔다는 것을 상기시켜줬다.

우리 군은 공격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이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전투기 지원을 요청했다. 17시에 제트기가 요새진지와 방공호에 거세게 폭탄을 투하할 때, 지상군들도 공격에 가세했다. 점령당한 마을의 집들, 거리에 있는 바리케이드, 요새진지를 하나씩 공격했다. 마을 안에서는 백병전이 시작되었고, 용감한 군인들은 적군을 한 명씩 처치하며 마을을 장악해 나갔다. 1951년 1월 27일 오후에 터키 여단은 임무를 다른 군에게 인계했고, 수원 지역에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951년 1월 26일 저녁, 우리 군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다. 목숨을 부지한 적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전장에는 꽤 많은 적군의 시체들이 있었다. 우리 군은 북쪽으로 정신 없이 달아나는 적군들을 향해 계속 총을 발사했다. 그날 전투는 승리로 끝났다. 터키군이 적군들에게 본때를 보여준 것이다. 피로 얼룩진 전장이 밤



[그림 20] 터키 여단과 미군

General Tahsin Yazici 타호신 야즈즈 장군 ABD Alb. Gambin 갬빈 미대령 Alb. Ceral Doran 제랄 도라 대령

의 어둠으로 덮이자 우리 군은 만족감과 기쁨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축하했다. 하늘에서 흔들리는 별빛은 마치 터키 영웅들을 칭찬하는 듯했다.

이 전투에서 적군들은 손을 위로 올리고 항복하는 시늉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폭탄을 우리 군에게 던지거나, 시체처럼 누워 있다가 아군이 다가가면 폭탄을 던지는 등 많은 속임수를 쓰기도 했다.

터키 여단장 타호신 야즈즈 장군은 중공군과의 전투에 관하여 관련 참모본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사망자들의 대부분은 이마와 관자놀이에 총을 맞았다. 중공군 포로들은 제150사단 제2연대 소속군으로 자신들이 군우리 전투에서도 싸웠다고

말했다.”

현재 이 작전 지역이었던 이곳(용인)의 우뚝 솟은 언덕에 총검 모양의 ‘터키군 참전기념비(그림 22)’가 세워져 있고, 그 옆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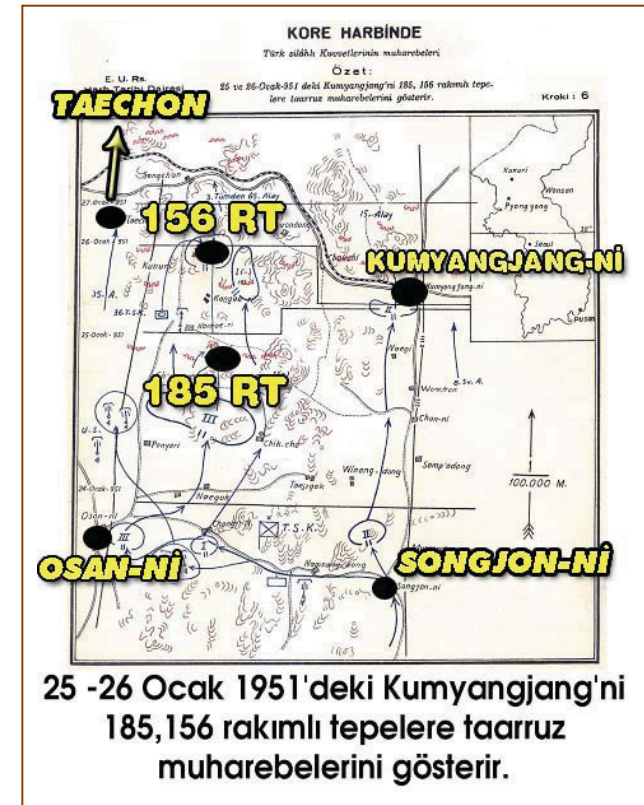
금양장리 전투 승리가 갖는 의미

미 의회는 금양장리 전투 승리에 대한 공로로 우리 여단에게 ‘우수부대훈장’을 수여했다.

나흘간 지속된 군우리 전투에서 철수하는 UN군의 우익 역할을 하며 홀로 남게 된 터키군은 예상 불가능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한겨울에 언어도 통하지 않고, 적군과 아군을 분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터키군은 적군 게릴라 습격으로 1,0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해 병력이 급격히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항하며 지역을 사수했다. 이러한 터키군의 노력으로 사흘이라는 시간을 얻은 미 제8군은 적군에게 포위되어 전멸될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군들을 무찌르고, 두 번째로 전세를 역전시킨 터키군의 금양장리 전투 승리는 군우리 전투 이후 한국전쟁을 포기하려고 했던 UN군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며 터키군의 작전에 동참하게 하였다.

‘금양장리 전투’의 승리가 세계로 알려지자 공산진영에 속하지 않은 국가의 원수들과 대사, 의회, 각종 기관들, 저명한 인사들은 터키군의 위대한 승리에 열광하며 터키 정부를 축하했다.



[그림 21] 한국전쟁 185 · 156 고지 공격 전투배치도

Kore Harbinde 한국전쟁
Taecheon 태춘

Kumyangjangni 금양장리
Songjonni 송전리

Osanni 오산리
156 RT 156고지

185 RT 185고지

제랄 도라Ceral Dora 연대장은 저서에서 금양장리 전투 승리와 관련한 세계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터키 연대는 자신보다 세 배 많은 중공군 사단과의 근접 전투에서 총검공격으로 월등한 승리를 거두었고, 전장을 둘러보았을 때 수천 명의 중공군 시신들 이마에 총알이 관통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터키군이 얼마나 훌륭한 저격수이며, 얼마나 뛰어난 전사이며, 얼마나 총검을 숙련되게 다루는지, 얼마나 용감한 군대인지 보여주는 증거이다. 저녁이 되어, 겨우 목숨을 구한 적군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도망쳤고 전장에는 승리한 터키군의 총검이 남겨져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유명한 미 보병장교 블레어Blair 중령은 금양장리 전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전투가 한국전쟁에서 가장 격렬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터키군의 이 전투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였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 전투는 전쟁 역사에서 본보기가 될 가치가 있으며,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156고지에서 펼쳐진 전투 이후 미 사령부는 전사한 중공군의 사진들을 담은 앨범을 제작하여 UN군과 터키 여단으로 보냈다.

제9중대장 투란 에르귈괴르Turan Ergüngör 대위는 금양장리 전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전투의 중요성과 상세한 내용이 터키에서 그 가치에 합당하게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아마도 이것은 당시 신문이나 뉴스에 행해졌던 검열의 영향이었던 것 같다.”

도안 압바스 유르다쿨Dogan Abbas Yurdakul 연대작전참모 대위는 금양장리 전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것은 터키와 중공의 전투였다. 나는 터키군들이 전사 민족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 156고지 전투는 역사서에 황금 페이지로 남아야 한다.”

금양장리 전투 결과, 적군의 사망자 수는 1,735명, 생포했거나 부상당한 포로 수는 82명이었다. 반면 터키 여단은 12명의 전사자, 4명의 중상을 입은 군인들을 포함하여 사상자는 총 30명이 전부였다.

1,735명의 중공군을 전멸시키고, 아군 측 전사자는 단 12명밖에 발생하지 않은 전투는 세계 역사에서 찾기 어렵다. 터키군의 이 용맹은 이루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림 22] 용인에 있는 터키군 참전기념비

제 8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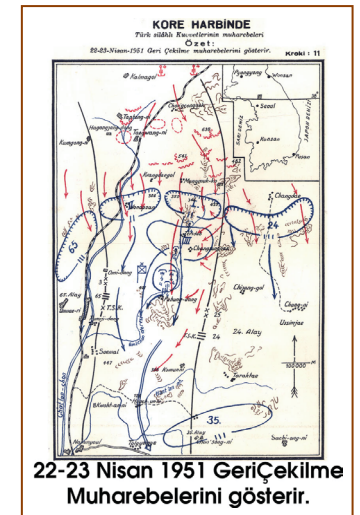
중공군의 춘계 공세

중공군의 공격과 UN군의 후퇴

1951년 4월 22일 20시에 중공군은 모든 전선에 걸쳐 총공격을 시작했다. 적군이 총력을 기울인 공격에 모든 UN군은 후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951년 4월 22일, 터키 여단은 우익에 있는 제24연대가 전진하며 목표를 점령할 수 있도록 그곳에 남아 정예 정찰대를 이용하여 적군의 동태를 살피기로 했다. 최전선 중대에서 차출된 정찰대는 적군의 강한 저항, 탱크와 포병 사격을 맞게 되었다.

이 정찰대 중 서쪽에 있는 제6중대의 강력한 전투 정찰대는 북쪽으로 전진 중 25명의 적군과 격전을 벌여 적군 15명을 사살하고, 중위를 포함한 7명을 포로로 잡았다.



[그림 23] 터키군 후퇴 상황(1951.4.22~23)

사단 작전본부에서 이루어진 포로 심문으로 적군들은 최신 방향탐지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몇 킬로미터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중포병 연대가 전방관측소임이 밝혀졌다. 포로들이 소지하고 있던 문서와 지도들로 적군들의 집결 세부사항과 작전계획 등을 알아낼 수 있었다. 포로들은 중공군들이 1951년 4월 22일 19시에 모든 전선에서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터키 여단은 적군 공격 시 현재 위치한 지역의 전선을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951년 4월 22일 16시에 적군의 공습이 시작되었다. 19시 15분에 적군은 우리의 참호를 향해 대포와 박격포를 거세게 발사했다.

터키 여단의 우익에 있는 부대와 함께 진지에 있어야 하는 제24연대 소속의 한 부대가 도망가 버리자, 적군은 우익의 첫 번째 전선 425고지에 진지하고 있던 제9보병사단의 동쪽으로 전진하여 제9보병사단을 동쪽에서부터 포위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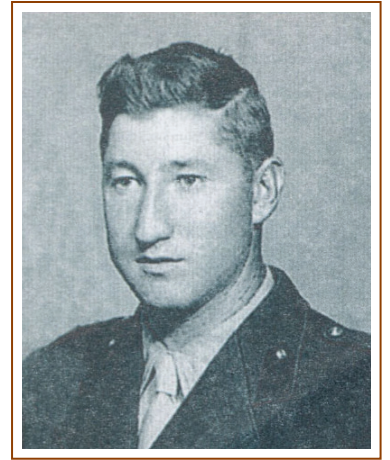
제9보병사단은 동시다발적으로 전선으로부터 적군의 공격을 받았다. 중대는 총검과 폭탄으로 어렵사리 버티고 있었다. 중대장 옆에 있던 포병 정찰 장교 메흐메트 괴넨치(Mehmet Gönenc) 중위는 전사할 때까지 포병이 제9보병사단 주변에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포병 메흐메트 괴넨치 중위의 전사

1951년 4월 22일~23일 저녁, 포병 메흐메트 괴넨치 중위가 포병 전방 정찰병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제9보병사단 주둔 지역에 적군들의 공격

이 더욱 거세졌다. 제3호 전방 정찰장교로 임무를 수행하던 메흐메트 괴넨치 중위는 무전기로 포병대대 작전본부에 다음과 같은 포격 지원요청을 한다.

“적군이 우리가 있는 언덕을 점령했다.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다. 보병 중대장이 포로가 되었다. 통신병도 전사했다. 좌표는 다음과 같다. 포대는 발사하라.”



[그림 24] 메흐메트 괴넨치 중위

연대 포병 연락장교는 무선으로 “말씀하신 좌표는 중위님이 현재 계신 곳입니다.”라고 말했다.

메흐메트 괴넨치 중위는 “맞다. 우리는 적군들에게 포로가 되기 싫다. 우리를 그들에게 넘기지 마라. 다시 좌표를 알려주겠다. 모든 대포 부대는 이곳으로 포격하라.”라고 말한 후 무선이 끊겼다.

포병대대 작전본부에서, 자신의 죽음까지 불사한 포병 메흐메트 괴넨치 중위의 마지막 포격 요청을 들은 장교들은 대대장 타흐신 쿠르트타이 Yarbay Tahsin 중령, 부대대장 아흐센 사야 Ahsen Saya 소령, 행동교육장교 레미 에랄프 Lemi ERALP 소령 그리고 제25사단 포병대대 연락장교인 알라딘 하이다르오울루 Aladdin HAYDAROĞLU 대위였다.

모든 장교는 놀라서 서로 얼굴을 바라볼 뿐 어느 누구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포병 정찰장교 메흐메트 괴넨치 중위는 자신이 있는 곳에 모든 대포를 발사하라고 한 것이다. 전쟁사에서 이러한 사건은 보지도 듣지

도 못한 것이었다.

장교들은 이 상황과 관련하여 부득이 메흐메트 괴넨치 중위가 요구한 대로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눈물을 흘리며 모든 대포를 발사하기 시작했다. 단지 여단 포병대대뿐만 아니라 전 사단 포병대대가 그 좌표로 발사를 시작했다. 발사된 대포들은 쿵하고 터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흐느끼는 듯 했다.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메흐메트 괴넨치 중위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에서 들려온다. 반드르마^{Bandırma} 출신 전사자 메흐메트 괴넨치에 대해 그의 모교에서, 카르스 성에서, 예디테페에서, 카디페칼레에서, 찬카야에서….



[그림 25] 메흐메트 괴넨치 중위와 전우들

반드르마^{Bandırma} 전사자인 메흐메트 괴넨치 이름을 딴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알리 뢰게르^{Ali Dülger} 미술교사는 메흐메트 괴넨치 중위를 기리는 시를 지었다.

“당신은 성스러운 전사자. 불멸의 영웅 메흐메트.
불멸의 이름으로 영원히 평안하게 잠들길.
당신의 용맹으로 세계에 터키인의 소리를 알렸다.
전사자 메흐메트 괴넨치 고등학교는
당신의 이름을 딴 것이 자랑스롭다.”

퇴계원리 전투 - 서울 사수

1951년 5월 1일

1951년 4월 22일~23일 저녁, 철원 전선에서 시작된 중공군의 두 번째 대공격으로 UN군은 서울 근방까지 후퇴했고, 전쟁의 주도권은 또다시 적군의 손에 넘어갔다. 적군은 서울을 점령하고자 했고, UN군도 서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서울 사수 작전에서 터키 여단은 이 전선의 전방에서 정찰 임무를 부여받았다. 터키 여단은 적군의 양방향 공격이 교차하는 퇴계원리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적군이 서울 사수의 거점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우선 터키 여단을 격퇴해야만 했다. 이처럼 터키 여단은 서울 사수 작전에서도 중대한 임무를 맡았고, 이는 우연의 일치나 운명이 아니었다. 터키 여단은 전사로서 증명된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중요하고 어려운 임무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군대이었기 때문이다.

미 사령부는 공산주의자들이 1951년 5월 1일 노동절을 기념하여 전날

밤 서울을 공격할 것이며, 1951년 5월 1일 아침 공산주의 세계에 서울 점령 소식을 노동절 깜짝 선물로 바칠 것이라는 계획을 입수하였다. 이에 모든 부대는 4월 30일 밤 적군의 공격이 있을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

UN군은 38선 이북에 있는 김화-철원-평강 삼각지대를 향해 공격을 시작했으나, 1951년 4월 22일~23일 밤 시작된 중공군의 반격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적군은 다시 전쟁의 주도권을 잡았다. UN군은 서울까지 후퇴하면서 적군이 서울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서울에서 북쪽으로 8~10km 떨어진 곳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 정렬했다. 전쟁의 주도권이 적군에게 넘어가자 희망이 꺾이고 사기가 떨어졌으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림 26] 적군과 대치 중인 터키군

서울 수호 작전에서 터키 여단은 경찰대 임무를 맡았다. 터키 여단은 전선의 5km 전방 퇴계원리 지역에서 주변 방어를 하며 적군과의 접전을 준비했다.

적군은 서울을 공격하기 전에 경찰기지에 있는 부대를 격퇴하기 위해 공격을 시작했다. 터키 여단의 좌익에 있던 경찰기지가 하룻밤 사이에 전멸되었다. 다음 날 밤 적군은 터키 여단의 우익에 있는 경찰기지 연대를 공격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 연대는 한강까지 후퇴하였다.

이제 적군은 의정부-서울, 천마산-송라산-서울이 만나는 퇴계원리 지점을 맡고 있는 터키 여단에게 공격을 가할 참이었다. 터키 여단의 선발 경찰대는 적군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고 여단에 보고했다. 결국 1951년 5월 17일 경찰대는 1~2km 이상 전진할 수 없었다. 적군이 1km 가까이 접근했던 것이다.

터키 여단은 적군들의 무선통신을 감청하여 “제25사단 지역에 있는 터키 여단을 찾아라. 터키 여단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듣게 되었다. 적군은 터키 여단이 홀로 있다는 것을 알고 기회로 삼았던 것이다. 터키 여단을 사방에서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적군은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포병과 박격포를 전방에 배치하고 발사하기 시작했다.

UN군은 여단의 좌우 경찰기지 연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터키 여단에게는 후퇴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적군을 단독으로 대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던 것이다. 터키 여단은 그날 밤 또다시 단독으로 적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방어 전투를 펼쳐야만 했다. 터키 여

단의 삼면은 적군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후방은 지뢰밭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전이 시작되면, 터키 여단은 자신들의 위치를 사수하지 못할 경우 전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파악한 터키군은 참호를 준비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어둠이 깔린 시간, 터키군은 참호에 몸을 숨기고 적군의 공격을 기다렸다.

1951년 5월 18일

적군이 대포와 박격포를 동원하여 사방에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터키군의 피해는 커졌고, 적군의 새로운 부대가 투입돼 공격에 가세하며 발포를 했다.

5월 18일 밤, 적들은 터키 여단을 상대로 우세한 공격을 펼쳤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들이 세상에 ‘춘계 공세’라고 명명한 이 전투에서 수개월의 준비와 달리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섯 차례에 걸쳐 공격을 재개한 적군은 터키군이 지키고 있는 지점 어느 한 곳에도 진입하지 못했다. 적군들은 사상자 규모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해전술로 터키군의 참호 전방을 향해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계속 밀려왔다.

5월 18일 아침이 되자 적군은 외지고 어두운 숲 속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계곡은 화약 연기로 뒤덮여 있었다. 터키 여단 참호 바로 앞 맞은편 산등성이에는 수백 명의 적군 시체가 널려 있었다. 터키군을 공격한 적군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날이 밝아올 즈음, 참호 전방은 적군들의 시체로 가득 차게 되었다.

후방의 본부 참호에 있던 아군들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교전 속에서 대포와 기관총 소리를 들으며 터키 여단이 철수하거나 전멸하여 자신들에게 전투 순서가 올 것을 걱정하며 아침까지 대기하고 있었다. 날이 밝자 아군 사령관들은 터키 작전본부를 방문하여 따뜻하고 진심어린 축하를 했다.

5월 18일 새벽 5시까지 계속된 공격에도 적군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터키 여단을 제거하는 데도 실패했다. 터키 여단은 또 한 번 적군이 전진할 길을 차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여단은 이 전투가 한 국전쟁의 운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터키 여단은 오직 적군들의 공격을 중단시키고 작전 지역을 수호하기 위한 전투에 전력을 다하는 데 몰두했다. 그리하여 터키 여단은 이 전투에서도 영광스러운 승리를 했던 것이다.

적군의 서울 공격 작전은 오로지 터키 여단만이 막아냈다. 이는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다. 터키 여단이 적군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적군들이 서울로 전진할 길을 차단함으로써 이제 UN군에게 공격차례가 왔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여단이 1951년 5월 17일~18일 밤에 가한 공격으로 적군의 전투능력을 저하시켜 놓은 상황을 이용하여 UN군도 반격을 가하며 38선 이북으로까지 전진할 수 있었다. 서울 수복을 성공하게 한 이 전투에 ‘거인들의 전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아군들은 작전본부에서 “터키군은 지금까지 공격으로 명성을 떨쳐왔으나, 방어전에서도 그 우세함을 명백히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라디오에서도 매 시간 터키군의 대승을 보도했다. 적군들이

‘터키군의 성城’을 넘지 못했다며 자국민들에게 서울을 떠나지 말 것을 권했다. 다른 국가의 라디오 뉴스들에서도 “터키군들이 길을 내주지 않았다.”, “터키군들의 새로운 승리”, “서울이 구제되었다.” 등의 소식이 보도되었다.

5월 20일 아침, 날이 밝기 전 UN군은 총공격에 나섰다. 미 제8군 사령관은 상황을 즉시 평가했으며, UN군은 전쟁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5월 17일~18일 밤, 적군 포병의 발사로 므타드 울루원뤼Mikrad Uluünlü 제2대대장이 전사했다. 이날 터키군은 적군과 대면하지 않고 21km 전진했으나 도착한 지역에서 게릴라들이 묻어둔 폭탄 폭발로 뤼트뤼 빌긴Lütfü Bilgin 제3대대장이 전사했다.

터키 여단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한 후 돌아오는 길에서 만났던 아군들이 기쁨과 애정으로 “일등이 돌아오고 있다.”, “용감한 자들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축하해 주며 박수를 치자 모두들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후 퇴계원리 참호에 ‘터키성城’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날 밤 적군 2개 연대가 터키군을 공격하여 적군 사망자수는 1,500명에 이르렀으나, 터키군은 장교 2명과 병사 9명이 전사하고, 장교 4명, 부사관 2명, 병사 18명이 부상 입는 것에 그쳤다.

제 10 장

터키 제3여단의 베가스, 엘코, 카슨 전투

베가스에서 싸운 터키군, 한국전쟁의 종식과 정전을 도모하다

미국인들은 이 지역을 네바다 기지라고 불렀으며, 동베를린, 서베를린, 엘코, 카슨, 소小베가스, 대大베가스라는 다양한 이름이 붙은 고지들에 형성된 전선⁶⁾이 전투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이 기지는 터키군이 방어를 했던 전방 앞에 안전 목적으로 형성된 곳이었다. 적군이 전선까지 전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방에 있는 이 전초기지를 점령해야 했다.

터키 여단⁷⁾ 중대가 지키는 전초기지인 베가스 언덕은 특히 터키군과 중공군이 생과 사를 다투는 무대가 되었다.

터키 여단은 군우리 전투 이후 베가스 전초기지에서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다. 151명이 전사하고, 450명이 부상당했다. 중공군은 몇 개의 중

6) 서부전선을 의미한다.

7) 이 장의 터키 여단은 터키 제3여단을 의미한다.

대가 지키고 있는 전초기지를(터키군 약 500명) 1개의 사단(약 1만 5,000명 적군)과 7개의 포병대대로 공격했다. 적군은 약 3,000명의 인명피해를 입었으나 고지를 점령하지 못했다.

3년간 지속된 한국전쟁에서 터키 여단은 증강된 보병연대로 구성되었다. 공격에서도 방어에서도 터키 여단은 3년 동안 2개의 연대⁸⁾ 규모로 공격과 방어를 위해 전선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전선 방어와 예비병력 분배에 어려움이 따랐다. 터키군 앞에는 수적으로 우세한 적군이 있었기에, 중공군에 맞서 적어도 한 명 당 세 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베가스에서도 중공군의 수적 우세함은 엄청났고, 그들은 홍수처럼 몰려왔다. 그들은 총알을 발사하듯 병사들을 내보냈고, 그들은 개미떼처럼 몰려왔다.

전투 결과, 엘코 언덕을 지키던 제6중대에서는 여덟 명의 군인밖에 살아남지 못했다. 공병중대에서도 열 명의 군인만 남았다. 중대가 분대 규모로 축소되었음에도 적군은 이 분대를 넘어 실제 전투 전선까지 접근하지 못했다. 1개의 사단을 상대로 2~3개의 분대가 상대했으니 믿기 어려운 균형이다. 터키군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싸웠다. 이 전투는 피가 낭자했기 때문에 '유혈의 베가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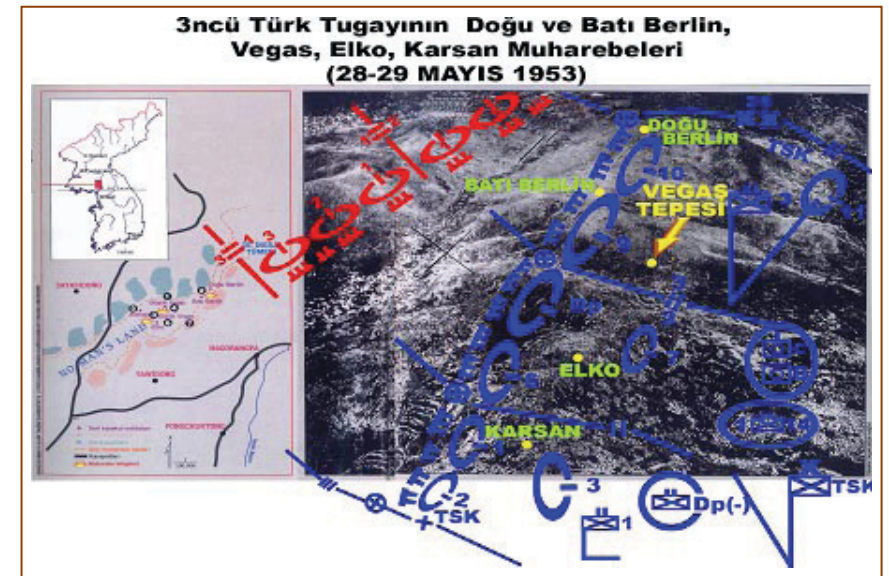
열여섯 시간 동안 지속된 유혈의 무자비한 전투 끝에 특히 대베가스 고지는 아홉 차례에 걸쳐 주도권이 바뀌었다. 다음 날 우리 군은 대베가스 고지를 장악했다. 적군은 온갖 노력을 했지만, 소베가스과 엘코로 진입하

8) 실제로는 1개 연대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저자는 2개 연대로 서술하였다.

지 못했다. 공병중대는 카슨 지역에서 총검 공격으로 적군을 박살내며 보병처럼 싸웠다.

한국에서 전쟁이 종식되고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 중 하나는 베가스에서 적군을 무찌른 것이다. 베가스에서 승리하지 못한 적군은 실제 전선까지 가지 못했다. 얼마 후 적군은 정전협정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터키 여단은 작은 규모의 부대로 네 차례에 걸쳐 전쟁의 운명을 바꾸어놓았다.

터키 여단은 베가스 이후 두 번째로 우수부대훈장을 받았다. 터키 여단의 유일한 예비 병력이자 엘코와 카슨 전초기지에서 임무를 맡은 공병중대의 지휘자 쉬나쉬 쉬칸^{Şinasi Sükan} 대위는 죽음을 무릅쓰고 앞장서 싸웠다.



[그림 27] 터키 여단의 동·서베를린, 베가스, 엘코, 카슨(서부전선) 전투상황도(1953.5.28~29)

지구 최후의 날을 방불케 하는 전장에서 죽음을 무릅쓴 유혈의 접전은 1951년 5월 29일 오후까지 16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중대장 쉬나쉬 쉬칸 대위는 중공군이 던진 수류탄이 폭발해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언덕에는 고작 10명의 공병중대 병사와 10명 정도의 보병만이 남아 있었다.

안네 캐서린 패닝 Anne Katherine Fanning 이라는 한 미국 작가는 베가스-엘코-카슨-동·서 베를린 전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5월 8일 터키군은 제25사단과 함께 미 제1해병사단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기 위해 이동했다.

정전회담은 판문점에서 지속되었고, 모두들 전쟁 지역을 떠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1953년 5월 3일 미 제1해병사단은 판문점 주변 지역에 배치되면서, 제25사단 및 터키 여단과 자리를 교체했다. 언덕에 있는 방어 지역에는 전초기지가 있었다. 이 전초기지들은 미군들을 위한 이름들로 되어 있었다.

우익 전초기지는 동베를린, 서베를린, 본부는 베가스, 엘코, 칼슨, 서쪽 전초기지는 에바라고 명명되었다. 이 전초기지 전체는 네바다 기지라고 불렸다. 터키군은 다른 UN군들과 함께 중요한 사건이 없는 시기에는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5월 중순, 적군에 소속된 소규모 공격 팀들은 이 전초기지들을 시험하고 점검하기 위해 몇 차례 공격을 감행했다. 전초기지는 수차례에 걸쳐 주도권이 바뀌고, 치열한 전투 끝에 재탈환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자 5월 중순 이후 중공군들은 다른 공격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터키군은 바로 제25사단과 함께 군영에서 나와 네바다 전

초기지에 포진했다. 터키 여단의 사령관은 스킨 아자르 Sırmı Acar 준장이었다.

아자르 장군은 제1대대를 좌측, 제2대대를 베가스, 카슨, 엘코에, 제3대대를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에 있는 전초기지에 배치시켰다. 터키군을 공격한 중공군은 제46중공군 부대의 제120사단에 소속된 제358, 제359, 제360대대였다.

중공군들은 카슨-엘코-베가스 전선과 서베를린, 동베를린 전초기지를 공격했다. 터키 포병은 전진해 오는 중공군에게 포탄을 발사하고, 미 탱크로 공격하여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중공군도 자신들의 포병 부대로 대응 사격을 했다. 5월 28일 중공군 제120사단은 네바다 기지와 베를린 전초기지를 향해 진격했다.

터키군은 대포와 박격포 포격에 맞서 베가스와 엘코 전초기지를 방어했지만, 결국 카슨 전초기지는 적군의 손에 넘어갔고, 엘코 전초기지 또한 거센 공습을 받게 되었다. 베가스 전초기지는 적군과 UN군 간에 수차례 주도권이 바뀌었다. 엘코, 베가스, 카슨 전초기지는 결국 적군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5월 29일 밤 11시 윌리엄스 Williams 미 사단 사령관은 터키군에게 현 지점에서 철수할 것을 명령했다.

5월 30일 날이 저물 무렵 철수가 완료되었다. 이 교전에서 150명의 터키군이 전사하였고, 140명이 부상당했다. 중공군의 경우 약 3,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전이 끝날 무렵 전투 상황은 매우 처참하고 심각해졌다. 이는 한국전쟁에서 터키군의 마지막 교전이었다. 이 여단은 터키 제4여단에 합류되었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서명하게 되면서 유혈의 전쟁은 이렇게 종료되었다.”

한국 통역장교 이재영은 베가스-엘코-카슨-동·서 베를린 전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제 이름은 이재영입니다. 군우리 이후 터키 여단과 함께한 한국인 통역관입니다. 여단 작전본부 제1·제2부서에서 일했습니다. 부대원들이 계속 교체되었지만 저는 계속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천안에서 15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저는 금양장리를 기억합니다. 저는 제2대대에 소속되어 있었고, 중공군 시체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군인들은 총검으로 찔리고, 어떤 이들은 총알을 맞고 죽어 있었습니다. 타흐신 Tahsin 장군과 김포에서 알게 되었는데 매우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터키 여단은 UN군 중 가장 훌륭한 전사였으며, 터키군 같은 군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1, 제2, 제3여단이 참여했던 전투 모두가 기억납니다. 제2여단 소속 누리 파미르 Nuri Pamir 대령이 전사했을 당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베가스 전투에서 저는 공병중대로 보내졌는데 그곳에서 쉬나쉬 쉬칸 대위를 만났습니다. 공병중대에서는 하룻밤 15명이 전사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저는 터키군을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터키 여단은 한국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大·소^小 베가스 전투

1953년 5월 28일 19시 50분 적군이 베가스 고지에 연막탄을 발사하여 고지가 연기로 덮였다. 적군이 연기 속에 숨어 전진해 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터키군은 연기 장막 후방을 즉시 공격했다. 5분 후 북쪽에서 적군 1개 대대와 대대 규모보다 큰 적군이 베가스 고지를 동·서에서 에워싸며 전진해 왔다.

베가스를 지키던 제3중대는 근접 사격에 들어갔다. 적군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공격을 시작했고, 전장에서는 총검과 폭탄에 이어 거센 육박전이 시작되었다. 적군은 소비egas로 후퇴한 아군들이 끝까지 저항하자 20시 50분에 공격을 중단하게 되었다.

베가스에서 전투가 계속될 때, 제7중대장은 병력 보강을 위해 1개 소대를 베가스로 보냈다. 제7중대장은 자신의 중소대와 제3중대 중 살아남은 병력으로 소비egas에서 적군들을 공격하여 후퇴시키고, 대베가스 전초기지를 21시 23분에 공격하여 탈환했다.

그러나 적군은 완전히 후퇴하지 않고 근방에 잠복해 있었다. 대베가스를 점령한 UN군은 적군과 근접 전투를 하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총검과 폭탄으로 공격을 가했고, 적군들은 21시 52분에 베가스 전초기지를 연막탄으로 덮고 거센 공격을 가했다. 터키군과 미군은 대포·박격포를 집중 발사했다.

대베가스 전초기지에서 포탄과 총검 격투가 지속되었다.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23시 6분에 적군들은 공격을 재정비했다. 적군은 대베가스를 세 번째로 점령하였고, UN군은 소비egas로 후퇴했다.

적군들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지속적으로 병력을 보강받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을 계속했고, 우리 군들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싸웠다.

베가스 전초기지 전투는 총검 공격과 백병전 형태로 이루어졌다. 적군들은 피해에 개의치 않고 공격을 지속해 나갔고, 터키군인들도 곳곳에서 자신들보다 몇 배나 많은 적군들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용맹하게 상대하며 총검과 폭탄으로 격퇴시켜 나갔다.

무엇에도 꺾이지 않고 가공할 만한 인내와 불굴의 의지로 싸우는 이 용사들은 때마침 포병대대, 항공지원중대, 미 포병의 공격 지원을 받았다. 다시 공격을 재개하며 접근하던 적군은 이 급작스러운 공격 속에서 무너져 갔으며, 부상을 입은 일부 터키군을 포함하여 이들은 마지막 사력을 다해 참호 안에서 적군들과 총검으로 계속 싸웠다.

1953년 5월 29일 8시가 되자 적군의 대응이 더 격렬해졌다. 적군들은 밤 동안 완료하지 못한 공격을 다음 날 낮에도 계속했다. 터키 여단장은 중대 보병 병사들로 한 소대를 구성했다. 이는 터키 여단의 마지막 예비병력이었다. 소베가스를 향한 적군의 공격은 아군이 막강한 공격으로 응대하자 범위를 넓히지 못했다. 소베가스를 점령하지 못한 적군은 대베가스과 북쪽에 있는 산등성이에서 방어 준비를 시작했다.

11시, 4개 소대로 이루어진 터키군은 대포와 박격포 그리고 전투기 지원 공격으로 대베가스를 점령했다. 이 소대는 엄청난 노력과 희생으로 대베가스를 점령했고, 적군들의 즉각적인 대응 공격도 격퇴시켰다. 적군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도망가기 시작했고, 도망가던 중 빗발치는 총격에 사망하기도 했다.

대베가스를 점령한 용감한 군인들은 도망가는 적군들에게 총격을 가하며 전진해 나갔고, 적군들이 150고지까지 도망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

리는 14시 30분경 소규모로 공격해온 적군을 물리쳤지만, 연막으로 전선을 뒤덮은 후의 거센 공격은 막지 못했다. 그래서 적군들에게 16시 18분에 또다시 대베가스를 빼앗겼다. 아군은 또다시 소베가스에서 대기했고, 적군은 공격을 지속하여 소베가스까지도 습격했다.

4개 소대 규모의 터키군은 5월 29일에 총검으로 고지에서 적군들을 격퇴했다. 적군은 패배에 개의치 않고 인해전술을 지속적으로 펼쳤지만, 매번 터키군의 장벽에 부딪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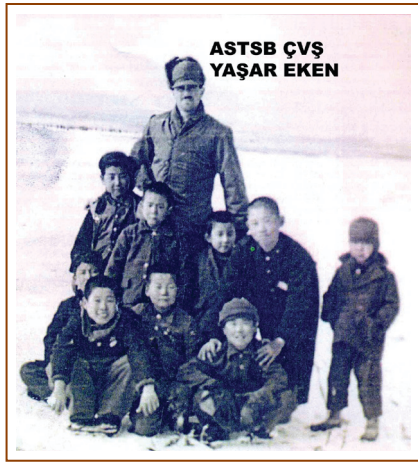
베가스에서 우리 군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매우 지쳐 후퇴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터키 여단장은 참호의 좌익에 있는 제2중대 전체를 베가스로 보내기로 결정했지만, 제25사단장은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그 전초기지에서 철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1953년 5월 29일 21시 30분, 베가스에 있던 부대는 적군들의 공격 속에서 전사자와 부상자들을 등에 업고 방어참호 후방으로 완전히 철수했고, 정찰대는 뒤에 남아 적군을 상대했다.

제3중대장 야샤르 에켄^{Yasar Eken} 하사는 1953년 5월 28일에 대한 기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5월 28일 오전 7시 30분에 적군은 전초기지에 박격포와 대포로 공격을 가했다. 때때로 실제 전선과 전초기지 사이에 있는 1.5km 거리의 공급로와 진입로에 하루 종일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대포 발사 후 적군은 베가스 전초기지로 공격을 시작했다. 터키군은 자신들보다 우세한 적군의 공격에 인내심 있게 대처하며, 영웅답게 베가스

를 사수했다. 하루 종일 계속된 공격이 잠시 중단된 틈을 이용하여 우리는 부상자들을 치료했다. 지속되는 적군의 공격 결과, 터키군은 대베가스에서 소베가스 쪽으로 조금씩 밀려났다. 다시 대베가스를 차지하면서 적군을 격퇴하기를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사상자 수는 갈수록 증가했다. 1953년 5월



[그림 28] 야샤르 에켄 하사

28일 20시 50분에 시작되어 5월 29일 21시까지 계속된 베가스 전초기지 방어는 26시간 동안 수도 없이 그 주도권이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엘코·카슨 전투

적군은 베가스 전초기지를 공격했던 것과 같이 1953년 5월 28일 20시를 기해 엘코와 카슨 전초기지에 대포와 박격포를 발사했다. 적군은 이 충격 이후 본격적인 공격에 들어갔다. 적군의 공격이 터키군의 폭탄과 총검으로 저지되기는 했으나, 근접 전투와 육박전은 격렬하게 지속되었다.

적군은 카슨 전초기지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무기들을 배치했다. 적군이 오전 2시 53분에 다시 엘코를 공격했으나, 터키군의 방어에 흠어지게 되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제6중대는 하나의 소대로 축소되었다. 적군

은 엘코를 상대로 공격을 재개했고, 우리 군의 강력한 대포 발사 반격에도 불구하고 엘코 기지로 진입했다. 엘코 전초기지에서 총검 전투, 포탄 발사 등과 함께 치열한 백병전이 시작되었다. 3시 42분에 공격이 중단되었지만, 근접 전투는 4시 30분경까지 지속되었다. 적군은 8시 15분에 엘코의 삼면을 동시에 공격했으나 터키군의 근접 전투, 총검, 포탄 발사 반격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적군은 9시 30분에 엘코와 카슨 지역을 연막탄으로 덮은 후, 연막 후방에서 다시 공격 준비를 했다. 2개의 미국 포병대대와 1개의 영국 포병대대가 적군들을 향해 발사했다. 11시 44분에 공격을 시작한 적군은 일부 참호 안으로 진입하였으나 곧 유혈의 백병전 끝에 격퇴되었다. 공격에 실패한 적군은 전방을 연막으로 덮으며 후퇴했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지친 엘코 전초기지 방어 부대를 교체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1953년 5월 29일 오후 12시에 이 기지는 미 제14연대의 한 중대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낸 중공군은 결국 전투지를 우리에게 내주었다.

엘코 고지 승리는 우리 총검으로 드리워진 그림자와 터키의 피로 적은 역사의 영광스러운 페이지에 남게 되었다.

이 전투가 끝나고 쉬나쉬 쉬칸 대위에게 ‘수훈십자상’이 수여되었다. 이 훈장의 증서에는 “쉬나쉬 쉬칸 대위가 직접 75명을 죽였다.”라고 적혀 있다.

터키 여단의 유일한 예비 병력이자 엘코·카슨 전초기지 보강 임무가 주어졌던 공병부대 지휘관인 쉬나쉬 쉬칸 대위는 중대 선두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서서 싸웠다.

적군들은 어떻게 해서든 엘코·카슨 고지를 차지해야 했기 때문에 5월 28일 21시 엘코·카슨 고지의 남쪽까지 접근했다. 언덕 아래에서 들려오는 몸싸움 소리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모습들은 이곳에 다시 적군들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림 29] 공병중대장 쉬나쉬 쉬칸 대위

짧은 시간 안에 정렬한 예비 병력군의 지휘관 쉬나쉬 쉬칸 대위는 부하들에게 엘코·카슨 지역에 있는 적군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래쪽에서 저항을 하고 있던 병사들도 가세해서 총검전이 시작되었고 적군을 격퇴했다.

교전은 매우 치열했다. 아군과 적군의 시체들이 서로 겹겹이 쌓여 방벽을 덮을 정도였다. 터키군은 치열한 백병전으로 확대된 이 교전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장교들은 공격 최전방에서 싸우며 병사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지구 최후의 날을 연상시키는 이 피 튀기는 교전은 1951년 5월 29일 오후까지 쉬지 않고 16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쉬나쉬 쉬칸 대위는 폭탄 뭉치의 폭발로 오른쪽 다리를 잃게 되었다. 고지에는 단지 10명의 공병대 군인과 10명의 보병만이 살아남았다.

중공군의 경우는 터키군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채 전장을 떠났다. 쉬나쉬 쉬칸 대위는 터키 정부 외에도 여러 곳으로부터 상을 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미 정부로부터 받은 수훈십자상(DSC)이다. 수훈십자상은 우리의 수훈훈장에 해당되며, 미군이 전쟁에서 주는 훈장중에서 명예훈장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급의 훈장이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장교와 병사 중 뛰어난 용맹성을 보여준 이들이 이 훈장을 받았다. 한국전쟁에서 UN군 소속 중 총 14명이 이 훈장을 받았으며, 그중 3명이 터키군이였다.

특별훈장 증서에는 쉬나쉬 쉬칸 대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터키군인 쉬나쉬 쉬칸은 한국 상¹고랑포 지역에서 1953년 5월 29일 용맹성을 발휘하며 우수한 전승을 거두었다. 그는 적군들의 거센 공격을 받은 카슨 전초기지를 지키는 임무를 맡은 한 소대에 자원해서 참여했다. 카슨과 엘코 전초기지가 적군들에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반격하여 적군들을 분산시킴으로써 엘코 전초기지가 적군들에 점령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후 쉬나쉬 쉬칸 대위는 방어선을 정비하여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 자신 또한 직접 75명에 달하는 적군을 죽였다. 용맹성, 명령 이행 그리고 전우애로 가득찬 터키군의 일부인 전초기지 보조 부대는 터키의 명예를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할 경우 목숨을 희생하며 지켜냈다.”

동·서 베를린 전투

제3대대 제9중대 제2소대장 울루에르 엔진^{Uluur Engin} 중위는 다음과 같

이 설명했다.

“우리가 있었던 곳은 중요한 고지였기 때문에 적군도 이곳 점령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주도권이 수차례 바뀔에 따라, 동맹군도 중공군도 곳곳에 대인지뢰를 설치해 놓은 위험한 곳이었다.

이 지역에 있던 미 탱크 소대 4명의 병사와 1명의 장교가 지뢰 폭발로 사망했고, 지뢰밭에 들어갔다 나오지 못한 2명의 미군은 터키군에 구출되었다. 1953년 새해 첫날 밤 제와트 바이락Cevat Bayrak 중위가 소대 참호 전방에 가시철조망을 설치하던 중 지뢰를 밟아 중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나는 그의 곁으로 뛰어가 그의 눈을 뜨게 했다. 중위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올루에르, 내가 어떻게 된 거지? 내 약혼녀한테 전해줘. 잘 있어.’라고 하고 내 팔에서 숨을 거두었다. 나는 몇 주 동안 울었고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난다.

우리는 적군과 그 전선에서 석 달 간 전투를 했다. 계절이 겨울이라 주위는 비교적 조용했다. 참호 교전, 매복, 정찰들로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한번은 적군들의 중화기가 있는 장소를 알아내기 위해 정찰을 다니던 중 적군의 박격포를 맞게 되었고, 턱에 부상을 입었다. 나는 포병과 박격포 지원을 요청했고, 반격에 들어갔다. 우리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없이 되돌아올 수 있었다. 3개월 후 우리는 사단의 예비병력으로 전선 후방에 가서 전력 보강을 하고, 새로운 무기 훈련도 받고 휴식을 취한 후 새 전선인 판문점으로 향했다.

우리가 배치된 지역은 네바다 기지라고 불렸다. 미 해군 연대가 이 지역을 지키고 있었다. 이 지역은 매우 중요했고, 동·서 베를린, 대·소

베가스-엘코-카슨 언덕에도 다양한 규모의 5개 전초기지에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 고지들은 전선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반드시 사수해야만 하는 지점들이었다.

나와 분대장들은 선발대로 먼저 가서 인계받는 전선의 지휘관과 일주일 간 함께 머물렀다. 우리는 함께 정찰하며 적군들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얻었고, 일주일 후 전선을 인계받았다. 5월 28일까지 방어전투, 정찰활동, 매일 반복되는 양 진영 간 박격포 및 포탄 포격, 연합군의 공습, 야간 전투 등이 지속되었다. 5월 28일 이후 중공군과 북한군은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

초반 36시간 동안은 치열한 백병전이 일어났다. 쉬지 않고 지속되는 교전에서 적군은 베를린 전초기지 동남부에 있었던 우리 소대를 포위하기 위해 나의 왼편에서 공격해왔다. 전투는 치열하게 지속되었고 우리는 거센 포격과 공습을 받게 되었다. 참호가 아주 튼튼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었다. 기관총은 너무 많이 발사한 나머지 별장게 달아올랐다. 우리 터키군 영웅들은 손이 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총신을 갈아끼웠다.

우리 군은 전선과 나의 왼편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적군들은 큰 피해를 보았다. 동·서 베를린 전초기지 전방에도 계속해서 사선으로 총격을 가했기 때문에 적군들은 그곳을 점령하지 못했다. 나에게 기관총을 남긴 미군들이 매우 고마웠다.

전초기지의 주도권이 몇 번씩 바뀌게 되면서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우리 여단의 예비 병력은 녹초가 되었다. 당번병, 서기 그리고 운전병들

로 이루어진 부대를 만들어 전선으로 보냈고, 이 부대들로 적군을 공격했다. 내 친구들인 몇몇 지휘관은 전사했다.

소대장 및 분대장들은 응급처치법을 잘 알아야 한다. 36시간에 걸친 베가스 교전에서 한 병사는 옆에 떨어진 박격포 포탄으로 왼쪽 다리와 왼손이 박살났다. 이 병사가 들것으로 실려 참호로 왔을 때 상태가 아주 심각했다. 나는 조각나버린 손목과 발목에 있는 살가죽을 잘라내고 지혈을 했다. 상처난 부위에 페니실린 가루를 뿌리고 붕대로 감쌌다. 팔과 다리에 지지대를 이용했다. 난생처음으로 정맥주사를 놓았고, 병사를 들것에 고정 한 뒤 전화로 요청한 앰블런스 헬리콥터로 옮겼다. 이 모든 일은 밤중에 일어났다. 미군이 두고 간 의료품들이 유용하게 쓰였다.

이전에 한 번은 부상자들을 나르기 위해 도착한 헬리콥터가 착륙하자마자 포격을 받았고, 미 위생병 한 명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10분 후 두 번째 헬리콥터가 도착하여 부상자들을 싣고 갔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 내가 손과 발을 절단했던 병사가 미국에서 돌아와 이스탄불에 있는 내 직장을 찾아왔다. 그는 내 손에 입을 맞추며 경의를 표했다. 당시 그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바로 도쿄로 후송되었으며 얼마 후 미국으로 보내졌다고 했다. 치료 후 손과 발에 보조기를 끼웠는데, 마치 자신의 손과 발처럼 편안하다고 했다. 그때 나는 인생의 의미와 중요성을 아주 잘 알게 되었다.”

엘코, 카스, 베가스 전투 결과

한국전쟁이 종료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는 베가스 전투였다. 베가스 전투 이후 터키 여단은 두 번째 우수부대훈장을 받았다.

적군은 1953년 5월 15일 베를린 전초기지를 공격하기 시작한 이래로 14일 동안 쉬지 않고 터키 여단 참호에 하루 110~630발의 대포와 박격포 포탄을 발사하며 새로운 공격 준비를 시도했다. 이는 터키 여단을 상대로 본격적인 공격이 감행될 것임을 암시했다.

1953년 5월 28일~29일 터키 여단의 전선에 가해진 공격은 이전 규모의 공격 수준이 아니었다. 적군들은 전초기지를 점령한 후 방어 참호를 공격하고, 전선을 무너뜨린 후 더 큰 작전을 시작할게 분명했다.

적군들이 선택한 공격 방향은 정전협정으로 중립 지역이 된 통로의 북쪽 경계선에 매우 가까웠다. 정전협정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전선에서는 포격 소리가 들려왔다. 적군들은 당시 기세를 몰아붙여 공격을 가하는 것이 정전협정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분명했다.

터키 여단에게는 현재 지역을 사수하고 잃어버린 지역들을 다시 찾는 임무가 주어졌다. 적군은 터키군의 전초기지를 7개 포병대대의 공격지원을 받는 1개 사단 규모로 공격을 가했음에도 겨우 카스 기지만 점령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우세한 병력을 동원한 적군의 공격은 큰 손실을 보며 실패로 끝났다.

이 전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적군들이 희생자 규모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병력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적군들 중에는 무기나 전투

장비가 없는 군인도 있었다. 이들은 사망자나 부상자들의 무기나 탄약을 가지고 전투에 참가했다. 무기가 없는 적군들은 수류탄이 들어 있는 봉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항복하는 척하며 재빨리 수류탄을 던지기도 했다. 적군들은 총검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 튀기는 백병전 끝에 대베가스 전초기지는 아홉 번에 걸쳐 주도권이 바뀌었다. 다음 날 대베가스는 터키군의 손에 넘어왔다. 적군은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베가스와 엘코기지에 진입하지 못했다. 공병중대는 총검 공격으로 적군을 혼비백산케 했으며 마치 보병처럼 싸웠다.

적군은 실제 방어 지역은 고사하고 전초기지에서의 교전에서도 고전했으며, 얼마 후 정전협정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터키 여단은 소규모 부대로 전쟁의 운명을 네 번째로 바꾸어 놓았다.

이 전투에서 터키 여단은 2,453,767발의 보병용 총탄, 62,970발의 다양한 박격포, 79,795발의 각종 수류탄을 사용했다. 우리 포병대대는 27,170발의 포탄을, 미 포병은 112,000발의 포탄을 발사했다. 이 전투를 지원한 영국군 소속 2개 포병대대의 탄약 소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터키 여단, 훈장 수여

터키 여단은 터키로 돌아온 후, 1953년 5월 28일~29일 전투에서의 업적을 높이 평가받아 육군사령관 리지웨이^{M.B. Ridgway} 장군으로부터 미 대통령 명의의 유공훈장을 받았다.

“1950~1953년 한국에서 함께 전투했던 용감한 나의 터키 친구들에게 진심어린 기원을 보내며.

- 1974년 육군사령관 리지웨이 -”

병력을 물 쓰듯 소비한 중공군과 접전한 제7중대 소대장 자히트 베르크^{Cahit Berk} 중위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베가스에서 우리가 죽인 중공군의 수는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이후 우리는 이들의 대부분이 중국인이 아닌 몽골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의 영웅들이 전사한 그곳에 3,000명의 중공군 시체가 누워 있었다. 이렇듯 터키 여단은 적군들을 막으며 임무를 성공적으로 실행했고, 많은 UN군의 목숨을 구해냈다. 우리는 중공군에 막강한 타격을 입히며 그들이 전선을 넘어오는 것을 막았다. 전세가 전반적으로 임진강 주변 상황과 같이 되자 적군은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고, 터키 제3여단은 정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베가스 전투 이후 터키 여단은 두 차례 우수부대훈장을 받았다.

터키 여단에 수여된 우수부대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적군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몰려왔고, 아군의 탱크는 적에 더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하기 위해 위험한 지역을 향해 이동했다. 아군들도 큰 피해를 봤지만, 적군들의 사망자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완강한 적군들은 수천 명의 인명손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해 수천 명을 더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전선 사령관은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오는 적군에 맞서 전초기지들이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여 전초기지 방어를 맡은 군인들에게 주전선으로 후퇴할 것을 지시했다.

이 일촉즉발의 전투에서 터키 여단이 보여준 용맹성과 뛰어난 투쟁 정신은 주전선을 돌파하려는 적군들의 계획을 수포로 만들었고, 이로써 터키군의英勇성이 인정되었기에 그 공로를 치하한다. 베가스 전투에 참전한 터키군은 한국전 정전협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했다.”



[그림 30] 전사자를 바라보는 터키군

제 11 장

한국전쟁의 심리전

한국전쟁에서 양측은 서로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투 의욕과 노력을 약화시키며 절망에 빠뜨리고, 항복을 부추기기 위한 심리전을 펼쳤다. 진지전에서도 심리전은 더 많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심리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선전 뉴스나 정보가 적힌 유인물을 비행기나 포탄 등의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적군들이 있는 곳에 살포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전선 100m까지 접근하여 2,000m 까지 그 소리가 전달되는 확성기나 비행기에 장착된 확성기를 통해 중국어와 한국어로 전선에 배치된 적군들에게 육성으로 투항 권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선전 결과, 적군들은 의미 없는 전쟁으로 자신들이 재앙을 겪고 있으며, 목숨을 희생하는 것으로 중국 국민들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UN군은 자신들의 진영에는 식량이 풍부하고 입을 것 또한 많다고 선전하였다. 항복할 경우,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편안한 인생을 살면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선전했다.



[그림 31] 대구에서 헌병에게 체포된 게릴라군

날이 어두워진 뒤나 여명을 틈타 적군들에게 이 전단지를 살포하는 목적은, 전선 주변에 있는 적군들이 자유롭게 UN군 쪽으로 넘어 오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전단지 하단에는 UN군 사령관의 서명이 있었고, 한글과 중국어로 쓴 전단지 뒤쪽에는 자유통행권을 붙이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한 선전과 적군의 자유통행권은 기대했던 성과를 얻었다. 이른 아침 어두컴컴할 때나 기상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전선에 근접한 곳에서 중공군들은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이 전단지를 깃발처럼 흔들며 UN군의 전선 쪽으로 넘어왔다.

중공군 역시 UN군 후방으로 정찰대를 통해 몰래 침투해 전단지를 뿌



[그림 32] 터키군에게 체포되어 수용소로 가는 공산포로들

렸다. 또한 선전용 대포로 UN군 부대가 있는 지역과 참호를 향해 소책자나 카드 등을 발사하기도 했다.

중공군은 UN군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시도했다. 특히, 미군들을 상대로 모국에서의 멋진 생활을 상기시키며 현재 참전하고 있는 전쟁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겪고 있으며, 모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분노를 불러일으켜 퇴각시키고, 자신들이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전쟁 초기 중공군은 게릴라 부대와 그들이 지원한 심리전에서 여성 스파이들을 이용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1951년

1월 7일 부산-마산 지역에서만 14,350명의 중공군 스파이가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파이들 대부분은 중공 여성 게릴라군으로, 북한 특정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그들은 모두 오른팔에 중공을 상징하는 문신이 있었다.⁹⁾

선전 전단지는 소련제 박격포의 폭발 마개가 있는 포탄으로 발사되었다. 이 포탄으로 발사된 소책자들은 거의 손상되지 않고 땅에 떨어졌다. 적군들은 그 소책자와 선전용 전단지를 통해 두 가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하나는 UN군 쪽으로 배포한 카드로 한쪽 면에는 가족 사진이, 다른 한면에는 무덤 사진이 있었다. 다른 하나는 정전협정에서 UN군 대표들이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식의 뉘앙스가 담긴 글이 있었다. 양측은 심리전을 일종의 무기처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펼쳐나갔다.

심리전이 터키군에 미친 영향

공산주의자들이 군우리 전투 이후 일반적으로 UN군을 상대로 전개한 심리전 양상 중 터키군을 대상으로 한 것을 살펴본다면, 터키군이 잡고 있는 총검을 손에서 놓게 하는 것이 심리전의 목표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편안한 환경에 있는 터키군을 상대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은 별 효과가 없었다. 한국에 가고 싶어하고, 전쟁에 참전하고 싶어했던 우리 군

을 세뇌하기 위해 적군은 다음과 같은 선전을 펼쳤다. 한 병사가 투란 에르귄괴르(Turan Ergüngör)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령관님, 그곳에서 죽으면 성전의 전사자로 기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맘(무슬림 성직자)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이맘일 리가 없었다. 이 선전은 의지가 약한 병사들에게 아주 잘 통했다. 알고 보니 적군들은 먼저 군인 가족들을 선동하여, 가족들을 통해 한국으로 파병될 병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했던 것이다.

전투 초반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게릴라 활동을 예를 들면, 먼지 자욱한 길에서 소가 끄는 수레 뒤에서 등에 아이를 업고 가던 할머니(터키군은 이들에게 초콜릿을 주곤 했다)와 밀짚모자를 쓴 할아버지 그리고 다 무너진 다리 가의 혼탁한 물에서 낚시를 하던 노인이 등 뒤에서 총을 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군인들은 공포에 떨었다. 뒤에서 또는 옆에서 공산주의 게릴라의 공격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터키군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터키군 헌병대의 조사에 따르면, 채소를 심고 있는 수레 밑, 저장식품을 실은 차량의 짐이나 자루 안에는 무기, 탄약, 폭탄이 있었고, 심문을 통해 이것들은 주변에 있는 공산주의 게릴라들에게 가져다주는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무기와 탄약을 나르는 사람은 늙은 남자거나 젊고 예쁜 여성들이었다. 발견된 무기는 압수되고, 공산주의자들에게 도움을 준 이들은 이후 포로수용소로 이송되었다.

9) 근거가 매우 희박한 것으로 저자만의 서술이다.

전쟁 포로에게 가해진 비인간적 대우

포로를 잡기 위한 활동

UN군 부대에는 적군의 방어전선 내부와 진지 안에 있는 적군의 요새, 무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신 기술의 장비를 갖춘 지상관측소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적군의 병력, 공격 시작 시간, 적군의 사기 등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수의 포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에게는 적군 정찰, 게릴라군 추적 임무 이외에 포로 체포 임무가 주어졌다.

적군 병사들은 밤에만 은신처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터키 경찰대는 야간에만 포로를 체포할 수 있었고, 이 임무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적군도 소대 또는 중대 단위로 정찰활동을 벌였는데, 이러한 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포로를 잡기 위한 것이었다.

UN군 사령부는 포로로 잡히지 않는 방법, 포로로 잡혔을 때 도망치는 방법 등을 소책자로 만들어 부대에 배포하고, 병사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했다. 이 책자는 한국전쟁에서 적군에게 포로로 잡히지 않았거나, 포로



[그림 33] 전쟁 포로

로 잡힌 후 도망칠 수 있었던 UN군의 실제 경험과 중공군의 성격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UN군 사령부의 교육 요지

“적들은 제네바 협약의 규정 대부분을 준수하지 않는다. UN군 병사가 포로가 되었을 경우, 적군은 포로가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부분 폭탄으로 크게 부상을 입힌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힌 포로는 매우 힘든 환경과 고문을 견뎌내야 한다. 포로가 되면 어쩌면 삶이 끝날 때까지 그 상태는 계속될 수 있다. 포로들은 이러한 고통과 불시에 처형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도망쳐야 한다.

포로의 모든 개인 소지품은 압수된다. 공산주의자들은 포로에게 자신들의 군인들에게 배급되는 식품을 주고, 대부분의 부상자나 병든 포로는 자신들의 병사들과 함께 치료받게 한다. 중공군들의 기준에서는 양호한 것이라고 할지 몰라도 UN군에게는 건디기 힘든 수준이다.

체포된 포로는 바로 심문을 받고 그날 저녁 사단에 있는 포로수용소로 보내진다. 몸에 이상이 없거나 가벼운 부상을 입은 포로들은 도보로 가고, 중상을 입은 포로들은 대부분 건강한 포로들에 의해 수용소로 옮겨진다.

사단 포로수용소에서 남한군 출신 포로는 따로 분리해 수용한 후 곧장 북한 측으로 보낸다. 다른 나라 소속 포로의 경우 그들의 신원이나 기본 정보를 파악한다.

적군들은 포로들 중 특히 노동자나 학생 또는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 이들에게 공산주의로 전향할 것을 제안하며 잘 대해준다. 공산주의자가 되기로 한 자들은 UN군에게 공산주의 선전을 한다는 조건하에 석방을 약속하고, 많은 혜택도 제안한다. 포로들은 이 모든 질문에 공격적인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 모른다는 답을 하면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포로가 되지 않는 법과 탈출 방법

불리한 상황에 처한 UN군 병사는 우선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야 한다. 전장에서 적군들에게 잡히기 전 구덩이, 도랑, 건물 잔해물 속에 몸을 숨길 수 있다. 특히 야밤이나 안개를 이용할 수 있다.

적군에게 잡힌 포로는 포로가 된 초반에는 탈출하기 위한 많은 기회를 엿볼 것이다. 그러나 포로를 감시하는 보초가 정해지고, 포로들이 북쪽으로 이송된 이후 탈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제랄 도라 *Ceral Dora* 대령은 한국으로 가는 배에서 병사들에게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어떤 식으로든 포로가 되는 굴욕을 당하지 마라. 너희를 불쌍히 여겨 죽이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갖지 마라. 무기도 없고 꼼짝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느 편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한 인간이 고문으로 죽거나, 죽을 만큼 힘든 일을 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포로가 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해야 할 것이다. 만약 내가 중상을 입고 나 자신도 누군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 가장 친한 내 친구가 나를 죽여준다면 나는 그들에게 참으로 고마워할 것이다.”

전쟁 포로들에 대한 중공군들의 비인간적 대우

포로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에게 가해진 잔혹한 행위들은 이루 다 설명할 수 없다. 이를 설명하려면 책을 수백 권 써야 할 것이다.

정전 이후 포로 교환이 시작되자, 공산주의 포로수용소가 어떠한지 상세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수용소에서 행해졌던 잔인함과 비인간적인 행위



[그림 34] 제5호 포로수용소(평양)에 있던 터키군 포로들 중 벨리 아타소이 병장과 전우들

들이 고스란히 눈앞에 드러났다. 대규모 포로 교환 시 병들거나 부상당한 포로들을 우선 교환했다. 양측 간 대규모 포로 교환 이후에도 미군 944명을 포함하여 3,404명의 UN군이 포로로 잡혀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

포로수용소에서 11,622명의 전쟁 포로가 살해되었다. 이는 매우 잔인한 수치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잔인함은 미리 계획된 것이었다. 카틴 *Katyn* 숲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폴란드 장교들을 살해했듯이 한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던 것이다.

수용소에 있던 포로 일부는 손이 뒤로 묶인 채 살해되었고, 부상당한

포로들은 수류탄 혹은 몸에 기름을 부어 불을 붙여 태워 죽였다.

중공군에게 잡힌 UN군 포로 중 건강하거나 걸을 수 있는 상태의 부상자들은 수용소까지 걸어갔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자들은 그 자리에 버려두고 가거나 총살시켰다. 포로들이 죽는 이유는 대부분 위생관리 부재, 식량 부족, 이질, 폐렴 등이었다. 중공군들은 소량의 식량을 주거나 아예 주지 않았고, 배급된 식량 또한 영양가가 없었다.

또 중공군은 포로들을 자그마한 철장에 가두고 살을 에는 추위에 맨 발로 서 있게 하거나 찬물에 몸을 담갔다 빼게 하곤 했다. 적군은 포로들을 두들겨 패고 물로 가득한 구덩이에 한동안 집어넣기도 했다.

죽음의 수용소들 중 한 곳은 ‘동굴’이라는 이름의 수용소였다. 이곳에 보내진 포로들은 담요도 없고, 화장실 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했다. 벨리 아타소이^{Veli Atasoy} 병장은 이러한 포로수용소들 중 한 곳인 450m짜리 터널에서 며칠을 지냈는지 모르며, 이틀에 한 번 주는 모래 섞인 보리밥을 먹으며 목숨을 부지했다고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대조되는 UN군의 포로 대우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한국전쟁에서 UN군은 포로들을 임시 수용소에 수용한 후 거제도에 있는 포로수용소로 이동시켰다. 거제도는 다도해 상에서 가장 큰 섬이었고, 부산항에 근접해있어 모든 종류의 공습 범위 밖에 있었다. 이곳에는 7만 명이 넘는 북한군과 중공군이 수용되어 있었다.

수용소 시설은 완벽한 수준으로 마치 현대식 병원을 연상시켰다. 전쟁

포로를 위해 모든 조치가 취해져 있었다. 거주시설은 완벽했고, 음식 배급은 보통 수준이었다. 포로들을 위한 샤워시설, 화장실, 소규모 시장, 극장까지 있었다.

전쟁 포로들의 관리는 매우 인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루 제공 식량은 2,900kcal에 가까웠고, 수시로 초콜릿과 미국 담배가 배급되었다.

하지만 인간적 대우에 익숙하지 않은 공산주의 전쟁 포로들은 얼마 후 수용소 내에 자체 조직을 만들어 공산주의를 대내외적으로 확산시키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용소 내부에 테러 조직을 결성하여 1952년 5월 7일에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에서 31명의 포로가 사망하였고, 139명이 부상당했다. 미군도 1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했다.

이 반란과 전쟁 포로들이 범한 살해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결성된 UN 재판위원회에 터키 대표로 무자페르 크란^{Muzaffer Kiran}이 임무를 맡았고, 그곳의 포로들과 사건을 조사했다.

한국전쟁 포로 규모¹⁰⁾

한국전쟁에서 적군에게 잡혀간 미군 포로 규모는 7,190명이었다. 이 포로 중 6,565명은 육군, 263명은 공군, 231명은 해병대, 40명은 해군 소

10) 저자의 서술은 본질의 포로 규모가 공식 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저자의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속이었다.

미군 포로 중 2,701명은 사망했고, 4,418명은 다시 돌아왔다. 관계자들은 귀환한 포로 비율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21명의 미군 포로는 자국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고, 적군의 국가에 남기를 선택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미군 포로 3명 중 1명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적군에게 협력한 죄가 있었다. 그러나 최악은 다시 돌아온 포로 중 75명은 공산주의자들을 위한 스파이 활동을 하기 위해 그들끼리 조직화되었다는 것이다.

980명의 영국군 소속 포로들 중 한 명만이 자국 귀환을 거부하고 중공에 남았다. 터키군 포로는 234명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군우리 전투에서 부상으로 낙오된 군인들이었다.

중공군들은 진료가 필요한 UN군 포로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UN군 의사를 허락하지 않았다.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길 원하지 않는 미국인들에게 마크 클라크^{Mark Clark}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모든 아픔 중 가장 큰 아픔은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공산주의를 택한 21명의 미 병사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수용소 내 다른 포로에게 욕설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이것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군 전쟁 포로들 대부분은 이러한 배신을 혐오했고, 공산주의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오늘까지 잘 버텼다. 그 끔찍한 수용소에는 영웅도 있었고, 겁쟁이도 몇 명 있었다.”

터키 전쟁 포로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적군들과 협력하지 않았다. 터키군은 포로로 잡혔을 당시 반 정도가 부상 상태였음에도 수용 시 한 명도 목

숨을 잃지 않았다. 중공군 포로수용소에 잡혀 있던 미군 포로 1,500~1,800명 중 400~800명이 사망한 것에 반해, 터키군 포로는 264명 중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 미군 고위급 인사는 터키군이 포로 수용 중에도 상하 명령 체계를 준수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터키군 포로에게 가해진 비인간적인 행위와 터키군 포로의 용맹성

터키군은 군우리 전투 중 밤이 되자 반은 부상을 입은 채로, 반은 기절 상태에서 적군들 속에 남아 있다가 포로가 되었다. 터키군 포로는 공산주의의 군에 이끌려 중공을 향해 ‘죽음의 행군’을 시작하게 되었다.

날씨는 매우 춥고 눈이 내렸다. 포로들 다수는 부상을 당하고 병든 상태였다. 걷지 못하는 포로는 길가로 끌려 나갔다. 잠시 후 공산주의자 보초병이 다가와 힘없고 걷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먼저 개머리판으로 내리쳤다. 다치고 병든 포로가 강요에 못이겨 겨우 일어나 도보 팀에 켜지면 천만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는 바로 머리에 총을 맞고 영원히 그곳에 남게 되었다. 이 장면은 다양한 국적의 포로들 중 걸을 힘이 없는 병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터키군 포로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랐다. 우리도 당연히 힘이 빠져 걷지 못해 길가로 끌려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 보초병이 오기 전 두세 명의 우리 병사가 먼저 뛰어가 전우를 일으켜 세워 등에 업었다. 이들 역시 다치고 병들고 힘든 상황이었다. 이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러운 이동은 며칠 간 지속되었다. 드디어 임진강과 압록강을 건너 중공에 도

착했다. 죽지 않고 이곳까지 온 포로들은 포로수용소에 갇혔다. 이 불운한 UN군들은 그곳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과 환경 속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서로를 위하는 터키군 포로들의 모습은 중공군 장교들을 화나게 했고, 그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 중공군들이 모든 포로에게 계급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고 모두가 동등하다고 했을 때, 다른 국가 군인들에서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반응을 보았으나 터키군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러자 특수 교육을 받은 전문 정보 장교가 와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 포로 무리 중에서 지위가 높은 대위를 무리에서 떼어내 철창에 가두었다. 중공군들은 이후 터키 병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해 하면서 일주일을 기다리며 관찰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대위 다음으로 높은 중위가 대위의 역할을 이어서 했다. 터키군은 전혀 영향받지 않고 질서 있게 생활했다.

터키군들이 포로 생활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위로를 나누었던 일화가 있다. 라마단 명절 때 염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상관으로 하미드^{Hamid} 대위, 이흐산^{Ihsan} 대위, 페브지 귀르젠^{Fevzi Gürgen} 대위 등을 포함하여 300명이나 되는 병사가 다 같이 나누어 먹었다는 이야기에서 잘 알 수 있다.

포로수용소에서 터키군은 중공군들이 다루기 힘든 존재였다. 중공군이 통역관을 데리고 공산주의에 대해 설명하려고 들면 조롱하고 놀랄 만한 질문을 받기 일쑤였다. 중공군은 급기야 러시아에서 터키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왔으나, 그도 견디지 못하고 수용소를 떠나버리고 말았다.

이후 모니카 펠튼^{Monica Felton}이 왔다. 그녀는 영국 여성동맹¹¹⁾위원장 British National Association of Women이었다. 그러나 그녀도 며칠 후 터키군들에게 모욕당하고 다른 곳으로 쫓겨났다. 이후 2명의 공산주의 선전원도 성공하지 못하자 중공군은 터키군 회유를 포기했다.

페브지 귀르젠 대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중공군의 심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을 경우, ‘파블로프 실험’이라는 방법을 적용했다. 내 앞에 종이 더미와 먹음직스럽게 튀긴 돼지고기가 놓여 있었다. 종이에 답을 적으면 먹을 것을 주겠다는 의미이다. 우리를 심문하던 첫 번째 사람은 소련군 소령이었고, 그의 이름은 말릭^{Malik}으로 터키어를 할 줄 알았다. 두 번째로 우리를 심문하던 사람은 캄레드^{Kamred}라는 사람으로 주 터키 중공대사관에서 오랫동안 일한 중국인이었다. 그는 터키인들을 잘 알고 좋아하는 45~50세 사이 중년 남성이었다. 중공군들은 우리를 낮에는 심문하고, 밤에는 서로 다른 감방에 집어넣었다.”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터키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전장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몸에 밴 터키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에서 기인한다.

포로수용소에서 공산군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UN이나 각 국가가 자국의 군인에게 배급한 모든 군복을 벗기는 것이었다. 그런 후 공산군들

11) 공산주의 전위조직을 의미한다.

은 포로들에게 군복 대신 아무런 계급장이 달려 있지 않은 똑같은 옷을 입힌다. 이렇게 하면 적군은 자신들이 기대한 바를 이룰 수 있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UN군들 사이에 계급이 없어지자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계급보다는 힘의 지배가 시작되었다.

식사시간이 되면 190명 포로에게 15~20명 분량의 양만큼만 먹을 것과 빵을 가지고 온다. 먹을 것을 중간에 놓는다. 힘이 센 자는 많이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당연히 굶게 된다. 병든 자들은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다. 신이 보호하는 자는 살아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죽는다. 그곳에서는 죽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

포로들 중 한 그룹이 있었는데, 이들은 중공군의 관심을 끌었다. 바로 우리 터키군들이었다. 군복 없고 계급표시도 없는데 이들 사이에서 중위는 여전히 중위로, 하사는 하사로, 상병은 상병으로, 사병은 사병의 위치를 지켰다. 계급이 있는 듯 조직이 있는 듯 위계질서가 잡힌 생활을 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포로 수용기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다. 터키군은 아침, 저녁으로 싸우기는커녕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다. 분대 단위부터 상위 단위로 점호를 했다. 가장 높은 계급은 대위였다. 대위는 병사들을 점검하고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묻고 아픈 병사들을 별도로 모았다.

터키군에게는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팀이 있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물리치료를 하고, 정신적으로도 힘이 되어 병사들이 포로로 버려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자신들이 만든 교육 프로그램도 있었다. 운동하고, 씨름하고, 놀이도 했다. 식사 시간이 되어 나누어준 식사나 빵은 중간에 놓았다. 대위의 지휘하에 음식을 공평하

게 나눴다. 모두 다 자신의 몫만큼 받았다. 가장 마지막에 대위도 다른 포로들이 얼마를 받았건 같은 양을 받아먹었다.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먹을 것을 공평하게 나눠 먹으라고 배웠고, 이를 가족들 사이에서 익혀왔다. 우리에게는 마을에 있는 작은 찻집에서도, 사원에서조차 지켜야 할 관습이 있었다.

모든 터키군 포로는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서로에게 의지하고 용기를 주며 서로를 보호했고 중공군들이 공산주의에 대해 설명하는 것조차 듣지 않았다.

페흐렌바흐 ^{Fehrenbach} 소령은 터키군의 포로수용소 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터키군들은 소련인들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터키의 적이었고, 터키는 소련과 공산주의를 혐오했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터키인들은 힘든 것도 잘 견뎠다. 중공군이 무엇을 주든 먹었고, 불평하지 않았다. 수용소에 있던 미군들도 터키군들이 씨름 먹는 것을 경이롭게 쳐다보곤 했다.”

1953년 전쟁이 종결되고, 정전협정 협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포로 교환 절차는 신속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포로 생활은 4~5년간 지속되었다. 포로 교환이 시작되자 터키군은 다른 군에게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 터키군 포로 중 가장 계급이 높은 대위의 지휘하에 일반 군부대처럼 질서정연하게 남한으로 건너왔고, 여단에 합류했다.

다른 국가의 포로들은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또한

켰다. 꽤 많은 군인들 특히 많은 미군은 모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게 된 새로운 공산주의 체제 국가인 중공에서 살기를 선택했다.

터키군은 포로생활에도 다른 국가의 귀감이 되었으며, 이러한 민족성을 연구한 미국 잡지 『맥콜Mc Call』은 터키군의 포로 생활에 대해 그들의 이름과 역사를 매우 상세하게 보도하며 마지막 부분에 미국 부모, 교육자, 사회학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엄중한 말을 남겼다.

“아나톨리아 대초원 한가운데서 태어나 수많은 고향 속에 성장한 터키 젊은이들은 모든 것이 풍부하고 편안하게 자란 우리 젊은이들과 같은 조건 속에서 같은 시련을 치렀다. 터키군은 성공했다. 모두 다 잡혔다가 모두 다 돌아오는 것에 성공했다. 우리 젊은이들은 서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고, 서로를 보호할 줄도 몰랐다. 우리는 적군에게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공산군들이 잘해주자 느슨하게 풀어져버렸다. 공산주의 체제까지 마음에 들어했다. 가족과 조국도 잊고 그곳에 남았다. 터키군들을 무너뜨리지 못한 그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젊은이들이 나약하고 부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던 무자페르 쉐부르치 하사는 포로 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군우리에서 내 뒤에서 포탄이 터져 내가 땅에 나뒹굴게 되자, 전우들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를 전사자로 신고했다. 그렇게 나는 전

사자 명단에 들어가게 되었다.

중공군은 부상당한 나를 다른 포로들과 함께 차에 태우고 새끼줄로 묶었다. 차는 여차하면 전복될 것만 같았다. 자동차 바퀴는 울퉁불퉁한 돌 길 위를 지나갔다. 부상자들 중 자동차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다. 떨어진 사람은 다시 차에 태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총을 쏘 죽여 버렸다. 중공군들은 이런 광경을 보고 낄낄거리며 웃었다. 내 옆에 앉아 있던 흑인 미군 한 명이 떨어졌다. 그는 밧줄을 붙잡고 차 뒤에서 질질 끌려오다가 힘이 빠지자 그 줄을 놓았다. 중공군 중 한 명이 그의 머리에 총을 쏘았다. 그러다 중공군 한 명이 내게도 총을 발사했다. 총알이 내 머리카락 사이에서 머리에 닿을 듯 지나갔다.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았다. 나는 꿈쩍하지 않고 죽일 테면 죽이라고 손짓했다.

내가 끌려온 수용소에서는 매일같이 손에 채찍을 든 보초병이 병자이건 부상자이건 상관 않고 동물에게조차 하지 못할 고문을 가하고, 나무를 뽑아오라며 산으로 데리고 갔다. 무거운 나무에 깔려 죽는 부상자들, 오고가는 길에 총검에 찔려 죽는 사람들, 채찍에 맞아 쓰러지는 사람들…. 우리는 끔찍한 고문과 잔학 행위, 비인간적인 행동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이 잔인한 자들 손에 남게 된 것이다.

우리 머리에는 이가 들끓고 더러운 냄새가 났다. 먹을 것으로 상한 생선, 콩국을 주었다. 양동이 가득한 국에는 콩 한 줌조차 없었다. 이 국을 마신 사람들은 이질 혹은 각종 병에 걸려 죽어야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수용소에는 1만 명이 넘는 UN군 포로들이 있었다. 벽동 포로수용소는 다른 수용소와 달리 매일 포로들을 큰 강당에 모아놓고 강제로 공산주의 선전을 듣게 했다. 중공군들은 캐나다 달러를 아주 좋아했다. 수중에 캐나다 달러가 있는 사람들은 필요한 물품들을 많이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동전 한 푼도 없었다.

포로 교환 시, 먼저 신원확인부터하고 이후에 각종 질문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긴장이 되어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막사에서 입고 있던 중공군이 지급한 옷을 벗을 때는 그새를 참지 못하고 찢어버리기도 했다. UN군 제복을 입으니 다시 편안해졌고, 자유를 얻은 후 먹은 첫 식사로 기쁨으로 목이 메었다.

포로 지옥에서 당한 고문으로 생긴 상처의 고통을 견디는 것도 신물이 났다. 나는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 모국에 장애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나는 치료를 원했고, 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1953년 4월 28일 수술대에 누웠고, 수술은 그다지 힘들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내 몸을 메스로 가르는 손은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나를 살리려고 하는 손에서 죽는 것은 그다지 슬픈 일이 아니었다. 기절과 고열 속에서 몸 부림치다 위기도 넘겼다. 이제 나는 삶이 내게 웃음 짓고, 나 또한 삶을 혐오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 것이라는 행복한 생각을 했다.”

첫 번째 포로 교환 그룹에 속한 한 병사를 1953년 4월 20일 인도받은

무자페르 크란Muzaffer Kiran 대위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문이 열렸다. 내려오는 영국 병사 다음으로 문 앞에는 곱슬머리에 덩수룩한 수염이 뺨까지 자란 한 병사가 서 있었다. 두려운 눈빛으로 주변을 돌아본 후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 순간 내 몸은 전기가 통한 듯 쭈뼛했다. 포로였음에도 문 앞에 동상처럼 꼳꼳하고 용감하게 서 있는 이는 바로 터키인이었다. 그는 온몸으로 ‘나는 터키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문으로 뛰어가 ‘어서 와 우리 아들, 나도 터키 사람이야.’라고 하자 그는 바로 내 품에 안겼고, 나도 그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30분 동안 진행되고 있던 포로 교환에서 보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다. 포로들이 세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포로들을 자신들의 곁으로 오지 못하게 하고 바로 진료 천막으로 이송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인, 한국인, 영국인, 그리스인들 모두 그렇게 했다. 그러나 우리 두 터키인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서로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는 내 뺨에 나는 그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 어떤 국가의 포로 맞이도 이렇게 진심 어리고 정감 있지 않았다. 그 순간의 흥분과 기쁨으로 우리의 심장은 튀어나올 듯 뛰었다. 나는 나 자신을 진정시키고 터키 국기 모양 배지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그는 뼈밖에 남지 않은 야윈 손가락으로 배지를 집더니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는 철철 눈물을 흘렸다.

‘알라여, 지금까지 데려가지 말라고 빌었던 그 목숨을 이제 가져가소서. 드디어 터키국기를, 자유를, 내 터키를 만났으니.’

그는 터키군이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고 하며, 터키군들에게 포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포로가 된 것을 수치스러워했다. 나는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했다. 적군은 터키군을 쉽사리 자기편으로 만들지 못했다고 위로했다.

다음 날 터키군 세 명을 더 인도받았다. 이들 중 가장 마른 병사가, “대위님, 보십시오. 저희는 아직 23~24살밖에 안 됐는데, 속이 다 망가지고 녹아내렸습니다. 쉼 살 먹은 사람보다 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나쁜 놈들이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려놨습니다.”라고 말했다.

UN 의료단에 참여한 무자페르 크란은 터키군 포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포로로 잡혀 있던 우리 군 234명은 1951년 중반까지 여러 도시에 있는 집단 수용소에서 생활했다. 우리 군은 포천¹²⁾과 벽동에 있는 수용소에 있었다. 터키군은 여러 가지 일을 겪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곳에서는 병사, 장교, 하사, 상병이 없다고 했다. 장교의 명령체계를 따르지 말라고 하며 장교, 하사, 상병, 병사를 각각 다른 수용소에 보냈다. 아마도 포천 집합소였을 것이다.

우리 병사들에게 매일 공산주의에 대한 교육을 했다. 한국인 한 명, 타타르게 소련인 한 명, 터키어를 아는 중국인 통역관이 교육을 했다.

12) ‘덕천’에 수용소가 있었으나, 원문의 표기를 그대로 서술하였다.

터키군 포로들은 터키에 대해 조금이라도 나쁘게 이야기하면 단체로 저항하는 것으로 이에 응수했다. 이러한 행동은 수용소 관리인들을 두렵게 했고, 터키군은 전선에서만큼이나 위험한 인물들이라고 인식되게 했다.

미국인들과 터키인들에게는 매우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행위가 가해졌다. 굶주림으로 미군 포로 중 약 2,000여 명이 포로수용소에서 사망했다.”

한국전쟁 사상자와 전쟁 이후 파병된 터키군

3년간 지속되었던 한국전쟁에서 남한군은 22만 명, 민간인은 100만 명이 사망했고, 500만 명이 집을 잃게 되었다.



[그림 35] 피해 입은 민간인 모습

터키군은 한국에 도착한 1950년 10월 19일부터 정전협정서가 서명되는 날까지 21,212명이 참전했다.



[그림 36] 전쟁 사상자 운구 장면



[그림 37] 미크타트 울루원뤼 소령 묘지
아들 에롤 울루원뤼, 딸 수나 울루원뤼



[그림 38] 부산 UN기념공원 내 터키군 묘역(I)



[그림 39] 부산 UN기념공원 내 터키군 묘역(II)

한국전쟁에서 터키군 전사자는 692명¹³⁾이고, 비전투 사상자는 74명에 이른다. 이렇듯 전쟁 중 또는 전쟁 이후 목숨을 잃은 터키군의 수는 966명에 이르고, 부산에 있는 UN기념공원에는 462명의 터키 전사자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한국전쟁 정전 이후에도 1960년까지 터키 정부는 한국에 매년 1개 여단을 보냈고, 가장 마지막으로 터키 제10여단이 파병되었다. 이후 1966년까지 1개 중대를 파병했고, 1966년부터 1971년까지는 매년 한 분대 규모의 의장대를 파병했다.

13) 6.25전쟁 피해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 공식 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원문의 수치를 그대로 서술하였다.

앙카라 학교 설립

터키 제2여단 정보장교 나즘 댄다르 Nazım Dündar 대위의 앙카라 학교에 대한 설명

나는 대위였을 때 여단 정보장교로 1951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부상을 입고 일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비행기 안에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 터키 라디오로 내가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랄 가족과 친지들이 걱정되었다. 다행히 한 달 반 후 나는 회복하여 다시 전선으로 돌아왔지만,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전보가 나보다 먼저 한국에 있는 장군에게 전달되어 있었다.

장군님은 내게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하면서 수도 서울 남쪽에 위치한 수원이라는 도시에 있는 여단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어머니를 잃은 충격이 조금 진정되면 보름 후쯤 귀환하라고 했다.

군의원 야샤르 탄촌 Yaşar Tançın 중위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길을 나섰다. 수원에 있는 병원에서는 가벼운 부상을 치료했다. 병실 바로 옆에 앙카라 학교가 있었다. 앙카라 학교는 700만 인구가 피란하는 과정에서 고아가 된 아이들을 읍, 면, 교외 지역 전쟁터에서 데리고와 공부시키는 곳으로 우

리 여단이 설립한 기숙학교였다.

어린 나이에 삶에서 가장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이 가여운 아이들 중 몇몇은 엄마 혹은 할아버지 또는 가까운 사람이 적군의 손에 죽는 것을 뵈 짚더미 사이로 보았다.

나는 숲 속 외딴 곳에서 눈과 입을 크게 벌린 채 두려움에 벌벌 떨던 아홉 살짜리 남자아이와 처음 만났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자신을 죽일 거라고 생각한 이 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덮고 주저앉아 있었다. 하지만 내가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라는 것을 알자, 내 목을 숨이 막힐 정도로 온 힘을 다해 끌어안았다.

아이는 자신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지 못하겠는지, 재차 내 목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내가 준 음식을 씹지도 않고 삼켜버렸다. 아무리 친근하게 대해 주어도 아이는 여전히 떨었다.(이름이 '김'이었던 이 아이는 목발에 의지해 겨우 걸을 수 있는 상태였다. 가족은 남쪽으로 피란을 갔고, 김은 가족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집에서 나와 숲 속에 숨어 있었다.) 나는 아이를 등에 업고 차로 데리고 가 후방에 있는 의무실로 보냈다.

이러한 아이들을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논 뒤편, 지하, 뽕더미 사이에 숨어 있는 고아들을 구해 앙카라 학교로 보냈다. 그곳은 UN군 소속으로 전쟁을 하고 봉사를 했던 22개국 중 터키가 세운 유일한¹⁴⁾ 학교였다. 터키군은 전쟁에 참전하면서 교육과 사회활동 등을 함께 해나갔던

14) 미 제40사단은 경기도 가평에 카이저학교(현 가평고교)를 건립하였다.



[그림 40] 앙카라 학교

것이다. 터키군은 어려운 시기에 사고무친인 어린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이다.

이 학교 설립을 기뻐하던 이들 중 한 명은 한국인 백상기 씨였다. 백상기 씨는 한국전쟁에서 우리 여단의 제2대대 영어 통역관으로 있었다. 그는 짧은 시간 내에 터키어를 배워 3년간 터키군과 함께 전쟁에 참전하였으며, 뛰어난 능력으로 주목받았다.

그가 터키 여단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정전협정 이후에도 3개의 여단과 함께 일했다. 앙카라대학교 사회과학대를 졸업한 백상기 씨는 앙카라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다. 50년간 터키인들과 함께한 것이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모든 터키인은 백상기 씨와 전쟁 당시 친근했던 것처럼 전쟁이 끝난 후에도 알고 지냈다.

존경하는 백상기 씨가 나를 감동시켰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정찰대 간의 교전이 매일 일어나던 때였다. 나도 가끔 정찰대 중 한 팀에 끼곤 했다. 어느 날 정찰대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내버려둔 적군 병사가 살아 있다는 것을 돌아오는 길에 알게 되었고, 그를 살리기 위해 다시 되돌아가 급히 들것에 실어 앰블런스에 태워 응급실로 데리고 갔다. 지혈이 되지 않아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가 겨우 목숨을 건졌다. 적군은 호전된 후 자신이 어떻게 목숨을 건졌는지도 모른 채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다. 내가 전쟁 중 겪었던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다.

같은 날 황폐한 마을의 어떤 집 문턱에 앉아 그릇에 담긴 밥을 먹고 있는 일곱 살짜리 여자아이를 우연히 만났다. 아이는 말을 못했다. 어린 나이에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충격으로 혀가 굳어버린 것 같았다. 품에 안고 싶었지만 아이는 손으로 나를 밀어냈다. 다 무너진 집 쪽으로 뒷걸음치기 시작했다. 아이는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아무리 좋게 이야기하고, 잘 대해 주고, 사탕을 쥐도 전혀 소용이 없었다. 아주 단단히 겁을 먹은 게 분명했다. 나는 그 아이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안고 먼저 대대에 있는 의사에게 데리고 갔다. 의사와 요리사들이 친근하게 관심을 보이자 아이는 더듬거리는 과정을 거치며 말을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이후 그 아이도 수원에 있는 앙카라 학교로 보내졌다.”



[그림 41] 앙카라 학교 기념촬영 15)

백상기 씨의 기억은 여기에서 끝났다. 우리는 이틀 후 수원을 떠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파 차마 아이들을 볼 자신이 없어 학교에 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아이들을 보며 그 아픔을 또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선으로 돌아갈 때는 심신이 더 강해져야만 했다. 이렇게 마음은 먹었지만 어느새 교장실에 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교장 선생님의 이름

15) 수원 앙카라 고아원 내에 설립되어 사진 내 한글 설명은 학원으로 표기되었지만, 원문에서는 학교로 서술되었다.

은 기덕 닉Kidek Nik이었으나, 무슬림이 되어 하산Hasan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내가 방문하자 교장선생님은 매우 기뻐했다. 학교에는 약 200명의 학생, 10명의 선생님과 행정직원이 있었다. 학교와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터키 여단이 부담하고 있었다.

학교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오고 얼마 후에 종이 울렸다. 아이들이 복도와 학교 앞 마당으로 나왔다. 교장선생님과 함께 걷고 있을 때 어린 여자아이가 큰 소리로 무엇이라고 하며 갑자기 뛰어와 내 다리를 끌어안고는 힘껏 소리쳤다. 나는 놀라 아이를 보고 내 주변을 보았다. 어느새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나를 끌어안고 큰 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했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당신을 알아요!”, “맞아요! 당신이 우리를 구해준 그 사람이에요!” 라는 말이라고 했다.

학생들 무리가 내 주위를 둘러싸자 나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들이 어찌면 ‘남자인데다 무엇보다 장교, 그것도 터키인 장교가 어떻게 울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감싸고 있던 팔을 거두고 그 자리에 앉았다.

나는 아이들 모두를 안아주려고 했다. 아이들은 내 얼굴에, 내 뺨에 뽀뽀를 하기 시작했다. 나도 아이들에게 뽀뽀를 해주었다. 내가 ‘김’이라고 알고 있던 남자아이도 목발을 내던지고 온 힘을 다해 내 목을 끌어안았다. 모두들 나를 안기 위해 달려들어 나는 일어서지 못했다. 나는 웃으며 교장 선생님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쳤다.

내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순간을 이렇게 앙카라 학교에서 보냈다. 백상기 씨는 나보다 먼저 학교에 와 있었다. 그가 쓴 『터키군과 보넨

한국에서의 6년』이라는 저서에도 있는 그 어린 여자아이의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아이는 자신의 뺨을 어루만졌던 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자기 뺨에 갖다 대더니, ‘나는 사랑이라는 것이 도달하기 어려운 위대한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 친척들 이후에 아빠마저도 죽고 나서는 다시는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저씨의 아름다운 마음씨가 아저씨를 지켜줄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했다.”

어린아이한테 이런 심오한 말을 듣고는 놀라고 말았다.

그 후 세월이 흘렀고, 아타튀르크가 아이들을 위해 제정한 4월 23일 ‘어린이날’은 국제적으로 어린이들의 축제일이 되었다. 어린이날 축제에는 다른 나라 아이들도 참여했다. 30개국이 넘는 국가의 아이들이 이 축제에 참가하고, 행복을 가득 안고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다. 그러나 나는 그 축제에서 한국 어린이들을 볼 수 없어 슬펐다. 왜 수원에 있는 앙카라 학교 어린이들은 오지 않았을까?

나는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백상기 씨에게 추억을 함께했던 앙카라 학교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린이날 축제에 한국 아이들을 보지 못해 슬프다고 하며 한국 아이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백상기 씨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터키군이 한국을 떠난 후 앙카라 학교가

폐교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¹⁶⁾ 나는 이 소식에 무척 상심했고, 다시 개설될 순 없냐고 하자 이 요청을 관련 기관에 전하겠다고 했다.

학교가 폐교된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국민들은 한국전쟁의 운명을 네 번이나 바꾼 터키 여단을 기리기 위해 앙카라에 한국공원이 있는 것처럼 금양장리에 18m 높이의 터키군 참전기념비를 세웠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그날 학교에서 병원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조금 전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끔찍한 전쟁의 기억만이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날의 따뜻한 느낌이 나를 무척 감동시켰던 것이다. 아이들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었다. 내 눈앞에는 나를 순수하게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들을 도무지 잊을 수 없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아이들은 똑같다. 그들에게는 관심, 도움, 사랑이 필요하다. 어린이에 대한 사랑은 인성을 고양시킨다. 감정 면에서도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지 않다는 것을 그날 생생하게 알게 되었다.

수십 년 후인 1987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미국 감독 랜다 헤인즈는 Randa Haines 「작은 신의 아이들」이라는 작품으로 상을 받았다. 대규모 피란 물결 속에 엄마 아빠를 잃고 혼자 남은 아이들을 두 팔 벌려 한 학교에 모아 돌본 터키군 또한 이와 같은 상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터키 여단은 한국전쟁에서 아타튀르크의 젊은이들로서 연달아 승전을

16) 1966년 터키군 귀국 이후 인수 기관이 없어 폐교되었다.

거듭했다. 터키군은 한국전쟁에서 용맹성과 연민의 정을 함께 끌어안았다. 그 두 가지를 함께할 줄 알았던 것이다.

UN은 아타튀르크를 모든 인류 영예의 상징으로 정의한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아타튀르크의 ‘국내에 평화, 세계에 평화’ 원칙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 오늘날까지 마흔다섯 차례나 국내외 전쟁이 일어났고, 5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쟁에서 사망했고, 계속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린아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제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평화가 완전히 깃들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다.

10년 이상 개최되고 있는 4월 23일 전세계 어린이날 축제가 세계 모든 어린이와 함께 하기를 나는 진심으로 기원한다.

제1여단 작전장교 사치트 귀원뤼 Saçit Gürünlü 대위가 말하는 앙카라 학교

“우리는 앙카라 학교를 개설했다. 길가에 내버려진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생겼다. 공부를 시키고, 우리의 군대 식량을 나눠주어 먹였다. 포병 중대장 쉴레이만 Süleyman 대위는 강가에서 여자아이 한 명을 발견하고 군복을 입혀주었다. 우리는 서울에서 이 아이의 부모를 찾았다. 아이를 인계하기 위해 부모에게 연락해서 이곳으로 불렀다. 아이는 자신의 아빠가 쉴레이만 대위라고 하면서 아무데도 가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는 아이의 친아버지에게 간신히 아이를 인계할 수 있었다.”



[그림 42] 앙카라 학교에서 유수프 귀나이든 하사

맺는 말

1950년 침략당한 한 국가의 자유 수호와 세계 평화를 위해 UN은 침략에 대해 처음으로 무력 개입을 결정하고 회원국에 지원 요청을 했다. UN의 요청에 터키는 긍정적인 답을 했다. 그 답은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수한 전투력을 가진 여단 수준의 군대가 UN군의 명령하에 들어간 것이었다.



[그림 43] 터키군 도열

터키군은 한국전쟁에서 부여받은 모든 임무를 성공적이고 용맹스럽게 수행했고, 터키 군인의 전투능력을 전 세계에 알렸다. 또한 터키군이 한국에서 만든 전설은 국내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기쁨과 흥분을 느끼게 해주었다. 터키 국민들의 터키군에 대한 변치 않는 신뢰 또한 한층 두터워지는 계기도 되었다.

터키군은 한국에 발을 내딛고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전쟁의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임무를 맡았다. 터키군이 3년 동안 거둔 열네 차례의 승리 중 네 번은 한국전쟁의 운명과 전세를 바꾸어 놓았고, 남한이 수복되어 주권을 회복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고 UN군의 명예 또한 지켰다.

한국전쟁의 운명을 바꾼 터키군이 승리한 4개 전투는 군우리 전투, 금양장리 전투, 퇴계원리 사수, 베가스 전초기지(서부전선) 사수전이다. 터키군이 처음으로 참전했던 군우리 전투는 한국전쟁에서 가장 격렬했고 힘든 전투로 꼽힌다. 군우리 전투는 터키군의 용맹성과 전투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터키군은 한국에 도착하기 전 짧은 시간 내에 참전을 준비하여 전쟁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도 없이, 1950년 11월 26일부터 중공군의 공격에 맞서게 되었다. 적군은 UN군의 전선을 가르고 군우리 방향에 있는 제8군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이 지역에서 적군을 막고, 공격을 지연시키는 임무가 갑자기 터키 여단에 주어졌던 것이다.

터키군은 UN군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측면과 후방이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적군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큰 피해를 무릅쓰고 단독으로 UN군이 포위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불리한 조건 속에서 싸운 터키군은 전술의 통일성을 잃지 않았고, 젊은 장교들 주위에 있던 용감한 병사들은 적군의 포위를 뚫기 시작했다. 터키군은 적군이 에워쌀 때마다 적군을 물리쳐 빠져나왔고, 다시 적군에 포위되는 등 서너 차례에 걸쳐 적군에 둘러싸이고 빠져나오기를 반복했다. 중공군은 두 개 사단 병력으로도 터키군 세 개 보병 대대를 이기지 못했다.

터키군은 중공군이 엄청난 병력으로 48시간 동안 가한 공격에서 탄약과 보급품이 다 소진되었음에도 총검으로 버텼다. 중공군의 우세한 공격에 포위된 터키군에게 후퇴 명령이 내려졌지만 터키군 사령관은 “후퇴하라고? 왜 우리가 후퇴해야 하나? 우리는 여기서 많은 중공군을 죽이고 있다.”라며 후퇴를 거부했다.

이 순간을 함께한 외국병사들도 목격한 바, 터키군이 장시간 적군에 맞서 싸우고 있을 때 영국군과 미군은 후퇴하고 있었다. 총탄이 소진된 터키군은 총검으로 적군을 공격하며 무시무시한 백병전을 시작했다.

터키군은 적군과 싸우면서 부상당한 전우를 등에 업고 후퇴하는 데 성공했다. 터키군은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평양으로 들어왔다. 터키군의 활약으로 중공군은 창성강 이남으로 뻗어 있는 길을 건너지 못했고, 따라서 강변 연안에 접근할 수 없었다. 적군의 공격에 맞서 나흘째 되는 날 평양으로 가는 길은 봉쇄되었다. 이는 터키 여단이 군우리 동쪽과 북쪽을 용감하게 사수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군우리 전투에서 터키군이 중공군의 공격을 지연시키고 막은 결과 UN군은 피해를 입지 않고 시간을 벌며 350km를 후퇴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림 44] 세계적인 사진작가 더글라스 던컨(David Douglas Duncan)이 찍은 '영웅 터키군' 사진('라이프'지)(1)

얻을 수 있었다.

중공군은 이미 터키군의 위력에 대해 알고 있었다. 수 세기 전 중국은 튀르크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대한 만리장성을 쌓지 않았던가. 과거 칼로 중국의 만리장성을 벌집으로 만든 대튀르크 제국의 자손들은 오늘날 총검과 탄피로 또다시 중공군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것이다.

UN군 소속 16개국 군대들 중 하나였던 터키군은 군

우리에서 처음 전투를 하였고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이 성공으로 터키군은 한국전에 참전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높은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후 중공군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UN군을 절망하게 했고, 사기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등지고 귀국선에 승선할 계획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터키군에게 군우리 전투와 같이 중요한 임무가 다시 한 번 주어졌다. 이 임무는 적군의 활동을 적발하고, 적군의 방어 참호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강행정찰을 하는 것이었다. 터키 여단이 자신들보다 강한 적군을 금양장리에서 참패시키고 혼비백산케 했기 때문에 UN군의

사기가 높아졌고, 다시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이다.

금양장리에서 터키군에 맞서 싸운 적군 부대는 군우리에서 터키군을 공격한 부대였다. 군우리에서 우리 여단을 포위하고 우리 군에 많은 희생자를 내게 한 적군은 중공 제38군 제150사단이었다. 이들이 금양장리에서 또다시 우리 여단 앞에 있었다. 터키군은 금양장리에서 이전에 싸운 그 적군들과 다시 맞섰고, 그들을 없애기 위해 단호하게 공격을 감행했다. 터키군은 금양장리 전투에서 엄청난 분노와 복수심으로 적군을 물리치고 미 의회로부터 '우수부대훈장'을 받았다.

이 훈장에는 터키군의 활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터키군이 지나간 자리에는 총검으로 벌집이 되고 개머리판으로 짓눌린 적군의 시체가 있었다. 이것은 이 전투가 얼마나 격렬하고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소리 없는 목격자였다. 적군 1,73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전쟁 영웅들의 용기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터키군은 단지 적군을 이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남한에 불리하게 흘러가던 전세의 물길을 바꾸어 자유의 길을 열고 UN군의 명예를 군우리 전투 이후 다시 한 번 드높였다. 금양장리 전투 승리는 적군을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고, 이 승리는 UN군 소속 다른 국가 군인들에게도 사기 진작 면에서 동기 부여가 되었다.

패배하지 않고 두려움을 모르는 터키군은 우수한 전투능력과 대규모 전투력으로 미 의회로부터 '우수부대훈장'을 받았다. 이전까지 이러한 성격의 훈장은 그곳의 미군 부대에게만 수여되었다. 미국 외 다른 국가 부대로서는 처음으로 터키 여단이 훈장을 받은 것이다. 터키 여단이 거둔 승리



[그림 45] 세계적인 사진작가 더글라스 던컨David Douglas Duncan이 찍은 '영웅 터키군' 사진('라이프Life'지)(Ⅱ)

는 세계 여러 곳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양장리 전투 후 2년이 지난 1953년 5월 28일~29일, 터키 여단은 미 제1해병사단과 함께 문산리 주변에 있는 전초기지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적군에 맞서 싸웠다. 전초기지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펼친 공로로 미 대통령은 터키 여단에 유공훈장(Legion Of Merit)을 수여했다. 유공훈장에는 터키군의 활약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매우 중요한 이 전투를 치르는 내내 터키군, 터키 여단 및 이에 소속된 부대들이 보여준 뛰어난 영웅성과 용맹성은 저항선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적군의 계획을 수포로 만들었고, 군인으로서 더 큰 명예를 얻



[그림 46] 터키군 우수부대훈장 수여 장면

게 했다.”

적군은 이 전투 이후 정전협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며, 기꺼이 응하는 마음가짐으로 정전협정을 위한 회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 얼마 지나지 않아 정전협정에 동의했다. 터키군이 1953년 5월 28일~29일 거둔 전투 승리는 한국전 정전협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듯 터키군은 한국전쟁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전쟁의 운명을 바꾸었으며, 결국 정전협정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마지막 전투에서도 승리하였다.

한국전쟁 전사자인 나지 곱체Naci Gökçe 중위의 부인 페리한 곱체Perihan

Gökç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산군들이 어찌하여 내 남편을 죽였을까요? 어떻게 내 남편을? 나는 항상 내 남편이 묻혀 있는 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내 손으로 땅을 파헤쳐 우리 터키군이 나오면 무덤이라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공자 가족 월급으로 나는 한 달에 220리라, 내 아들은 110리라를 받습니다. 돈이 없어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50년 후 한 연구자가 북한을 방문하여 군우리 지역에 갔다고 합니다. 그곳은 출입금지 지역으로 철조망이 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내 남편이 전사한 그 장소에 무덤이 있고 훼손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이 무척 편해지고 걱정이 덜어졌습니다.

내 남편은 편지에 자신은 명예롭게 터키로 돌아오길 원하며, 공산주의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것이라고 쓴 바 있습니다. 적군들에게 동정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공군 조종사 친구 두 명이 죽었다고 매우 슬퍼한 적도 있고요.

우리 아들이 커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는 왜 아빠가 없냐고 물었지요. 나는 내 아들 에르투을 곱체Ertuğrul Gökçe에게 아빠가 전쟁터에서 전사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빠가 돌아가신 것을 이야기하자 아들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림 47] 나지 곱체 중위 유족

우리 아들은 방에 들어가더니 터키 국기를 손에 들고는 총으로 가상의 적을 공격하고, ‘난 우리 아빠를 죽인 사람들을 죽였어. 우리 아빠와 터키 군인들을 내가 구했어’라고 기뻐하면서 방에서 나오곤 했습니다.

모든 전사자 가족들의 마음은 상실의 슬픔으로 새까맣게 뒀습니다.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어떤 전사자 가족들의 아버지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도 그들에게 답장을 하곤 했지요. 어떤 전사자 아버지는 내가 쓴 편지를 우리 딸한테서 편지가 왔다고 울면서 읽었습니다. 죽은 아들들을 기억하기 위해 집 앞에 나무를 심기도 했습니다.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들도 차 내게 생활할 돈이 있냐고 묻곤 했습니다.

나처럼 검은색 옷을 입은 한 중위 어머니가 이야기했지요. 아들이 여섯 살 때 아버지를 잃었기에 아들이 떨어질까 봐 나무에도 올라가지 못하게 하며 애지중지 키웠다고 합니다. 아들은 장교가 되었고,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 대신 전쟁터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이 군우리에서 전사하여 몇 년을 눈물로 지새웠다고 합니다. 내 남편처럼, 모든 전사자는 운명을 함께 했습니다.

전쟁 이후 5년이 지나 육군사관학교에서 나를 초대했습니다. 내 이웃들, 장교들 모두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교문에 내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무척 감동해 울었습니다. 관계자들은 나와 아들을 내 남편이 머물렀던 기숙사 방과 그의 침대에 데리고 갔지요. 나는 그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민족정신, 믿음, 우리 믿음의 상징인 자유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한국이 침략당한 것에 맞서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국가들 사이에 동참했습니다.

한국에서 UN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전사자가 되어, 나와 내 아들을 터키 국민에게 맡긴 내 남편 나지 픽체 중위를 34명의 친구들과 함께 육군사관학교에서 기념하게 되어 우리는 매우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터키 국민들의 온정과 사관학교 교장님의 감사 표시는 우리의 아픔을 덜어주었고, 우리를 매우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남편 나지 픽체가 제게 그리고 우리나라에 맡기고 간 제 아이를 성스럽고 고마운 국가를 위해 남편의 복수를 하기 위해 군인으로 키우겠습니다. 위대한 터키, 위대한 지휘관들 그리고 지도자들 만세!’

저를 기쁘게 한 또 한 가지는 제 남편 나지 픽체 중위의 이름이 그가 태어난 곳인 아으리^{Ağrı} 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저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양부와 자라며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아주 기뻐하며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들을 위해 목숨을 내주었습니다.”¹⁷⁾

외국의 사관학교들에서는 터키군의 한국전쟁에서의 활약과 관련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 결과물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인과 터키인은 과거 알타이 산맥 기슭에서 함께 살았으며, 이후 한국인들은 동쪽으로, 터키인들은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멀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양국 민족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언어를 비롯하여 전통과 관습, 사람들의 믿음 등 많은 문화적 공통점도 있다고 사료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터키와 한국은 서로 가깝기도 멀기도 한 나라이다. 여기서 멀다고 하는 것은 지리적 측면에서의 의미이다. 가깝다는 의미는 두 나라가 과거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과 같은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진심에서 우러난 친근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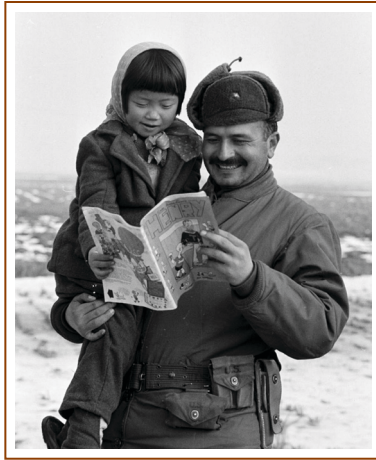
터키와 한국의 본격적인 관계는 1950년 터키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시작되었다. 양국 관계는 이후 단시간에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방면에서 급속한 발전을 보였다.

터키와 한국은 오늘날 혈맹국이자 우방국이다. 전쟁에서 보여준 형제애는 오늘날 양국 간의 진한 우정으로 변했다.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17) 원문 주 : 영웅 전사자 나지 픽체 중위는 군우리 전투에서 전사하였고, 시신은 북한 지역에 있다. 하지만 북한의 국경이 폐쇄되어 있어 무덤의 위치를 찾을 수 없다.

새롭게 태어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고 세계 강대국 대열에 진입했다. 터키군을 비롯한 UN군이 한국의 자유를 위해 흘린 피는 헛되지 않았던 것이다.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앞으로 터키와 한국은 이상을 공유하며 모든 방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우리 터키 국민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용사들과 전사들이 보여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용맹과 희생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다. 터키 국민은 한국에서 싸운 영웅들을 항상 자랑스럽게 느끼며, 이들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 것 또한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림 48] 한국전쟁 당시 한 소녀(최민자)와 쉬리만 프랫(Süleyman Fulat) 대위



[그림 49] 터키 앙카라 한국공원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비

참고문헌

A ATASE Başkanlığı Arşiv Belgeleri: (+)

D.133, K.138, D.84.

D.134, G.1, K.71, D.1.

D.134, G.1, D.5.

D.134, G.1, K.145, D.5.

D.134, G.2, D.4.

D.134, G.3, D.1.

D.134, G.4, D.1.

D.134, G.14, K.153, D.36.

D.134, G.17, K.150, D.66.

D.134, G.68, D.17.

D.134, G.18, D.75.

(487) Kore'de Savaşanlar Derneği Muhtırası; s. 25.

(488) Kore'de Savaşanlar Derneği Muhtırası; s. 30-31.

B Kitaplar

Afşin, Zeki; Kore Kahramanları ve Türkiye, Ankara, 1953.

Akay, Abdullah; Kore'de Dirilen Şehit, Ankara, 1985.

Allain, Davit; Battle Ground Korea The Story Of The 25 th Infantry Division, Tokyo, 1951.

Allen, C. Richard; Korea's Syngman Rhee An Unauthorized Portrait, Rutland, 1960.

Alexander, Bevin. Korea; The First War We Lost. New York: Hippocrene, 1986.

Alexander, George; The Chinese Communist Army in Action : The Korean War.

Alexis Johnson With Jef Olivarius Mc Allister: The Right Hand Of Power, New Jersey.

Appleman, Roy E.; U.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1961.

Armaoğlu, Fahir; Siyasi Tarih(1789-1960), Ankara, 1975.

Aslanoglu, Hikmet; Kore ve Kore Harbi, Ankara, 1951.

Aslanoglu, Hikmet; Neler Dediler, Ankara, 1958.

Ataman, Baha; Neden İşbirliği Yaptılar, Ankara, 1967.

Beloff, Maw; Soviet Policy In The Far East, New York, 1953.

Berger, Carl; The Korean Knot A Military - Political History, Philadelphia, 1964.

Blair, Clay.; The Forgotten War: America in Korea 1950-1953. New York: Times Books, Birinci Askeri Tarih Semineri, Bildiri IV.

Çalışır, F.; Kore Devrimi Üzerine, 1951.

Canbulat, Cevdet; Kore'de Mehmetçik, 1951.

Camille, Rougeron; Le Enseignements Je La Guerre de Coree, Paris, 1952.

Caridi, Ronald J.; The Korean War And American Politics, Philadelphia, 1968.

Clark, Mark W.; From The Danube To The Yalu, New York, 1954.

Clover, Robert T.; The Truth About Korea, London, 1951.

Clay, Blairis; The Forgotten War America In Korea(1950-1953), New York, 1987.

Clough, Ralph N.; Deterrence And Defense In Korea: The Role Of U.S. Forces, Washington, Corr, Gerald H.; The Chinese Red Army. New York: Schocken Books, 1974.

Chum-kon, Kim; The Korean War, Korea, 1973.

Cho, Soon Sung; Korea In World Politics(1940-1950), An Evalua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Berkeley, 1967.

Cutforth, Rene; Korean Reporter. London: Win-gate, 1952.

Cutforth, Rene; Korean Reporter, London, 1952.

David, Rees; Korea The Limited War, New York, 1964.

Dean, Philip; Was a Captive in Korea. New York: Norton, 1953.

Demokrasimizin İsmet Paşalı Yılları(1944-73).

Demokrat Partinin Altın Yılları(1950-54), İstanbul, 1990.

Denizli, Ali; Kore Harbinde Türk Tugayları, Genelkurmay Basımevi, Ankara, 1994.

_____; Kore Savaşındaki Kunuri Kahramanları, Turhan Kitabevi, Ankara, 2010.

_____; Kore Savaşındaki Kumyangjangni Kahramanları, Turhan Kitabevi, Ankara, 2010.

_____; Kore Savaşındaki Kore Harbinde 3 ncü Türk Tugayı Vegas- Elko-Karson Doğu ve Batı Berlin Zaferleri, Turhan Kitabevi, Ankara, 2010.

_____; Kore Kahramanı Şehit Binbaşı Lütfü Bülgin Hayatı ve Kahramanlığı, Berikan Kitabevi, Ankara, 2010.

_____; Kore Savaşı Belgeler ve Harp Fotoğrafları Albümü, 72 Tasarım ve Ltd Şti., Ankara, 2010.

_____; Kore Savaşı Uzaklardaki Kahramanlar ve Zaferleri, Başlık Yayınları, Ankara, 2010.

_____; Kore Harbinde Şehitlerimiz-10 Kahraman, Turhan Kitabevi, Ankara, 2010.

_____; Kore Harbinde Kunuri Zaferi, Turhan Kitabevi, Ankara, 2010.

_____; Kore Harbinde Kore Savaşı 1950-1953, Turhan Kitabevi, Ankara, 2010.

_____; Kore Savaşı Kahramanı Bandırmalı Şehit Topçu Üsteğmen Mehmet Günenç, Turhan Kitabevi, Ankara, 2011.

_____; Kore Savaşı Kahramanı Şehit Yüzbaşı Kaya Aldoğan, Turhan Kitabevi, Ankara, 2011.

Department of the Army,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2. "U.S. Prisoners of War in the Korean Operation: A Study of Their Treatment and Handling by the North Korean Army and the Chinese Communist Forces", 1954.

Deral, Mustafa; Kore'ye Niçin Gidiyoruz, İstanbul, 1963.

Dobbs, Charles M.; The Unwanted Sumbol America Foreign Policy The Cold War And Korea(1945-1954), Ohio, 1951.

Donovan, Robert J.; Nemesisi, Truman And Johnson In The Coils Of War In Asia.

Dora, Celal; Kore Savaşlarında Türkler, İstanbul, 1963.

Dulles, John Foster; War or Peace. New York: Macmillan, 1950.

Eighth Army by the Chinese Communist Forces, November 1950, in the Battle of the Chongchon River, Korea. New York: Morrow, 1953.

_____; The Military History of the Korean War.

Eminoğlu, İbrahim; Kore'de İslamiyet, Savaşla Gelen Umut.

Ergüngör Turan; Kore'de Birinci Türk Tugayı.

Erkmen, Seyfi; Kore'den Geldim, İstanbul, 1951.

Ertürk, Kemal; Kore Şafaklarında, İstanbul, 1952.

Fanning, Anne Katherine; Turkish Military in The Korean War, Yayınlanmamış doktora tezi, Türkçesi, Genelkurmay Askeri Tarih ve Stratejik Etüd Başkanlığı Kütüphanesi, Ankara,1993.

Fehrenbach, T.R.; This Kind Of War, New York, 1989.

Fehrenbach, T.R.; This Kind of War: A Study in Unpreparedness. New York: Macmillan, 1963.

Field, A. Jones;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 Washington, 1962.

Fotoğraflarla Kore Harbi; Ankara, 1952.

Further Summary Of Events Relating Of Korea(October 1950 To May 1951), London.

Futrell, F. Robert;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1950-1953) New York, 1961.

Gardner C Loyd; The Korean War, New York.

George, Alexander; The Chinese Communist Army Action In The Korean War.

Gnkur. ATAŞE Bşk. Iğlı Kütüphanesi ve Arşivi ile, Milli Kütüphane ve Arşivi.

Griffith, Samuel B.;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New York: McGraw-Hill, 1967.

Gyehh D. Paige; The Korean Decision, New York, 1968.

Gugeler, Russell A.; Combat Actions in Korea. Washington, D.C.: Combat Forces Press, 1954.

Gunther, John; The Riddle Of Macarhur Japon Korea And The Far East, London, 1951.

Gürkan, İhsan; Kore'de Savaş Ulaştırması, İstanbul, 1953.

Gürler, Şahap; Kore Tugayımızın Teftişine Ait Rapor, Ankara, 1951.

Güventürk, Faruk; Kore'de Kutup Yıldızı, İstanbul, 1969.

Hastings, Max; The Korean War. New York: Simon & Schuster, 1987.

Hermes, Walter G.; U.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GPO, 1966.

Heller, Francis H.; The Korean War A 25 Years Perspectiva, Kansas, 1977.

Higgins, Marguerite; Guerre EnCore'e, Paris, 1951.

Higgins, Trumbull; Korea And The Fall Of Mac Arthur A Precis In Limited War, New York, 1960.

Higgins, Trumbull; Korea and the Fall of Mac-Arthu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0.

Hung-Lick Hu; La Probleme Corean.

F., Stone; The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 New York, 1952.

James D. Clayton; Mac Arthur Douglas, Boston, 1970.

James, D. Clayton. The Years of Mac Arthur: Triumph and Disaster 1945-1964. Boston: Houghton Mifflin, 1985.

John, W. Spanier; The Truman-Mac Arthur Controversy And The Korean War, New York, 1965.

Kandemir, Enise; Kore Destanı, Ankara, 1954.

Kayacıklı, Tamer; Kore, İstanbul, 1978.

Kennan, George F.; American Diplomacy, 1900-195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Kepir, Mustafa; Kore Kahramanlarına Sesleniş, Ankara, 1951.

Kıran, Muzaffer; Şafakta Hücum "Kore Harbi", Ankara, 1965.

_____; Harp Esirleri, Ankara, 1959.

_____; Hürriyet Kapısı(Panmunjon), Ankara, 1957.

Kinthead, Eugene; In Every War But One. New York: Norton, 1959.

_____; Why They Collaborated. New York: Longman, 1960.

_____; Neden İşbirliği Yaptılar?(Çev. Baha Ataman) Genelkurmay Bşk. Yın, Ankara, 1967.

Kim, Ch'ang Sun; Fifteen Years History Of North Korea, Cpiluhgam, 1961.

Kim Chum-Kon; The Korean War. Seoul: Kwangmyong Publishing Co., 1973.

Kirbym, Stephen; The Two Koreas Conflict Of Compromise.

Kyrio, Kalinow; How Russia Built The North Korean Army, 1950.

Korsavaş Dergisi;sayı 2, 80, 81, 82, 84.

Kore'den Alınan Dersler, Ankara, Genelkurmay Basımevi, 1951.

Korea(1945-1975) Asia RR. Center Skoul, Kore, 1975.

Korea Institute of Military History. Soviet materials related to the Korean War(April 1993).

Kore Birleşmiş Milletler Kuvvetleri Tarafından Elde Edilen Muharebe Bilgileri Broşürü, Ankara, 1955.

Kore Broşürü; Ankara, Erkan-ı Harbiye-i Umumiye Basımevi, 1953.

Kore Destanı, İstanbul, 1951.

Kore'den Haberler, Ankara, 1960.

Kore Harbinde Türk Silâhlı Kuvvetlerinin Muharebeleri(1950-1953), Ankara Genelkurmay Basımevi, 1975.

Kore Muharebeleri, Ankara, 1953.

Kore Harp Albümü ve Uzak Doğu Mecmuası, İstanbul, 1951.

Kore'de İstihkam Teknik Haberalma Broşürü, Ankara, 1953.

Kore Kahramanlarına; İstanbul, 1982.

Kore Kahramanlarına; Ankara, Genel kurmay Basımevi, 1952.

Kore'de Muharebe İdare Yerleri Kore Broşürü; Ankara, 1953.

Kore'de Psikolojik Harp Broşürü; Ankara, 1957.

Kore'de Savaşanlar Derneği'nin Muhtırası; Ankara, 1974.

Korea A. Summary Of Further Developments In The Military Situation Armistice Negotiations And Prisoner Of War Camps Up to January; London, 1953.

Kore Savunmasına Katılmamızda Dini ve Siyasi Zaruret; 1950.

Kore'de Türk Tugayının Bir Muharebe Safhası ve Bazı Subayların Resimli Biyografisi, Ankara, 1959.

Korean War; The History Of The UN Forces In Korean War.

Korok, Daniş Remzi; Şafakta Hücum "Kore Harbi", Ankara, 1965.

Kölan, Enver; Kore Savaşlarında Muharebe Sınıfının Faaliyeti ve Bu Savaşlardan Muhaberecilik Bakımından Alınan Dersler, Ankara, 1952.

Leckie, Robert; The Korean War.

Lafeber, Walter; America Russia And The Cold War(1945-1971), New York, 1972.

Leland, M. Goodrich; Korea A Study Of U.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 New York, 1956.

MacArthur, Douglas, Reminiscences. New York: McGraw-Hill, 1964.

MacArthur, Douglas, Revitalizing a Nation, Heritage Foundation, 1952.

MacDonald, Callum A. Korea: The War Before Vietnam. New York: The Free Press, 1986.

Major R.C.N. The War In Korea(1950-1953) 1954.

Marshall. S.L.A.;The River And The Gauntlet Defeat Of The Eight Army By The Chinese Communist Forces. November 1950 In The Battle Of The Changchon River Korea, New York, 1953.

Marshall. S.L.A.; The American Fighting Man in Action, Korea, Spring 1953. New York: Morrow, 1956.

_____; Pork Chop Hill, William Morrow & Co., 1956.

_____; The River and the Gauntlet, William Morrow & Co., New York, 1959.

Matthew, Ridgway; The Korean War, Newyork, 1967.

McLellan, David S. Dean Acheson; The State Department Years. New York: Dodd, Mead.

McAllister Jef Olivarious With U.Alexis Johnson; The Right Hand Of Power New jersey.

Mitchell. C. Ciyde; Second Failure In Asia, Washington, 1951.

Meade, E. Grant;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New York, 1951.

Muharip Gaziler Dergisi; sayı 2,10.

Mustanoğlu Necati A.; Malazgirtten Kore'ye.

Mossman, Billy C.;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EBB And Flow November 1950 July 1951, Washington, 1990.

_____; U.S. Army in the Korean War: Ebb and Flow. Washington, D.C.: GPO (anticipated in 1990).

National Affairs Institute, History Of The Korean War, Korea Review.

Nazif, Nevzat; Kore Destanı, İstanbul, 1951.

Nelson, M. Frederick.; Korea and the Old Order in East Asia.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45.

Öke. Mim Kemal; Unutulan Savaş Kronolojisi, Kore(1950-1953), İstanbul, 1990.

Örgen, Cemil; Kore ve Kıbrıs Savaşları, İzmir, 1984.

Özoğlu, Nazmi; Kore’de Niçin Savaşım. Komünizm Mezalimi Korunma Çareleri, Ankara, 1954.

O.B.E. Thomas R.C.W; The War In Korea(1950-1953), 1954.

Oliver, Robert T.; Sungman Rhee The Man Belind The myth,New York, 1955.

_____; Syngman Rhee Ana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1942-1960), Seoul, 1978.

_____; The Truth About Korea, London.

Pelser, Frederick; Freedom Bridge, California, 1984.

Paige, Glenn D.; The Korean Decision, Newyork, 1968.

Paige, Glenn D.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New York: Free Press, 1968.

Poats, Rutherford M.; Decision In Korea The Mobide Company, New York, 1954.

Rees, David; Korea :The Limited War, New York, 1964.

Ridgway, Matthew B.; The Korean War, New York, 1967.

_____; Soldier, Harper & Brothers, 1956.

Rose, Cisle A.; Roots Of Tragedy The United States And The Struggle For Asia(1945-1953), Westpat, 1975.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a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1960.

Russell, A. Gugeler; Kore’de Muharebeler, Washington, 1984.

Sahn, Pow-Key; The History Of Korea, Seoul, 1982.

Sato Hideo And Chae-Jinlee; US. Policy Toward Japan And Korea.

Sayılan, Nazım Dünder; “Kore’de Türk Askeriyle Altı Yıl”(Birinci bölümü yayımlanmış olup, diğer bölümleri henüz yayımlanmamıştır).

Sel, Lütfü; Kore’de Cereyan Eden Muharebelerden Alınacak Dersler, Ankara, 1979.

Schnabel, F. Ja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1972.

Schnabel, James F. & Watson, Robert;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Washington, D.C., 1962.

Spiller, Harry; American POWs in Korea, sixteen Personel Accounts, North Carolina, 1998.

Solesinger, Arthur M; The Dynamics of World Power A Documen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Foreign Policy(1945-1973), New York, 1973.

Shihchien,Chih-Shih; A.Chronicle Of Principle Events Relating To The Korean Ouestion, Pekin, 1954.

S.L.A., Marshall’s; The River And Gaunlet Defeat Of The Eight Army By The Chinese Communist Forces November 1950, In The Battle Of The Chong-chon River, Korea, New York, 1953.

Spanier, W. John; The Truman-Mac Arthur Controversy And The Korean War, Cambridge, 1959.

Sohn, Pow-Key; The History Of Korea.

Sokwan, Minwung; A. View Of The North Korean Communist Puppet Regime, 1958.

Soykut, H. Refik; Kore’de Ebedileşen Kahramanlar, Ankara, 1952.

Srivastava, M.P; The Korean Conflict, New Delhi, 1982.

Stairs, Denis; The Diplomacy Of Constraint Canada, The Korean War And United States,Toronto, 1974.

Stepneh Kirbym; The Two Koreas Conflict Of Compromise Summary Of Events Relating To Korea, London, 1950.

Sükan, Şinasi; Marikko Matsubara Kore’den Japonya’dan Anılar, Ankara, 1974.

Summers, Harry G.; Korean War. 1950-1953, New York, 1990.

Sunalp, Turgut; Kore Harbi, İstanbul, 1954.

Taşkıran, Cemalettin; I. Dünya Savaşında Türk Esirleri, İstanbul, 2001.

The History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Republic Of Kore, 1973(1-6 Cilt).

Treatment of British Prisoners of War in Korea, London 1955.

Truman, Harry S.; Memoirs; Years of Trial and Hope, Vol. II., New York, 1956.

Tsou, Tang; America's Failure In China(1941-1950) Chicago, 1963.

Ülkü, Feyzullah Sacit; Kore Mucizesi ve Şehidin Sesi.

Üskent Necati; Dededen Torunlara Kore Anıları, Ankara, 2000.

Üstünel, Ş.; Kore Nire, İstanbul, 1978.

Varol, Mehmet; Kore'de Piyade Tankının Muharebe Keşfi,Çankırı, 1953.

Whiting, Allen S.;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New York, 1960.

Wint, Guy; What Happened In Korea, London, 1954.

Yaşnar, Ahmet; Kore'de Görülen Dava, 1951.

Yazıcı, Tahsin; Kore Birinci Türk Tugayında Hatıralarım, İstanbul, 1963.

Yoshio, Morita; Record On The End Of Korean War, Tokyo,1964.

27 Temmuz 1950

28 Temmuz 1950

30 Temmuz 1950

31 Temmuz 1950

24 Eylül 1950

29 Eylül 1950

30 Kasım 1950

03 Aralık 1950

06 Aralık 1950

Cumhuriyet; 01 Haziran 1950

19 Temmuz 1950

26 Temmuz 1950

27 Temmuz 1950

16 Eylül 1950

Ayın Tarihi; 1953, C.1, s.102.

© Süreli Yayınlar

Düstur; Tertip, 3. C.32., Kasım 1950-Ekim 1951, s.3., Kanun No. 11940.

Sicilli Kavanini; C.39, Kanun No. 7287., s. 951.

TBMM Tutanak; C.1. 1950, s.12. -.

TBMM Tutanak;C.2, 1951, s.72.

TBMM Tutanak; C.2, 1951, s.215.

TBMM Tutanak; C.3, 1951, 5.5, 28, 29, 195, 197, 198, 201, 202, 215.

TBMM Tutanak; C.13, Ankara, 1952, s.314.

Ulus Gazetesi; 20 Temmuz 1950

26 Temmuz 1950

색 인

3

38선 15, 18, 21, 23, 25, 26, 27, 74, 77

N

NATO 11, 34

U

UN 안전보장이사회 25, 34, 35, 135

UN총회 22

UN 한국임시위원단 22

ㄱ

개천 44, 47, 48, 49

군우리 전투 12, 18, 35, 41, 50, 53, 54, 57, 60, 61, 62, 79, 102, 112, 113, 140, 141, 142

금양장리 전투 10, 18, 57, 62, 63, 64, 65, 140, 143, 144

기덕 닉 134

ㄴ

나즘 된다르 129

나지 꺾체 145, 146, 148

남침 17, 25, 27

누리 파미르 84

ㄷ

덕천 30, 31, 41, 42, 43, 44, 47, 122

도안 압바스 유르다쿨 65

ㄹ

라이프 142, 144

레미 에랄프 69

로렌조 42, 43

뤼트퓌 빌긴 78

리지웨이 58, 96, 97

ㄴ

마크 클락 112

맥아더 장군 18, 22, 28

맥콜 118

메흐메트 괴넨치 68, 69, 70, 71

멘데레스 34

모니카 펠톤 115

몰로토프 33

무자페르 쉐부르치 118

무자페르 크란 111, 121, 122

믹타드 울루원뤼 78

ㄷ

백상기 131, 132, 133, 134, 135

벨리 아타소이 109, 110

블레어 64

ㄷ

사치트 귀원뤼 135

셀림 사르페르 33

쉬나쉬 쉬칸 81 82, 84, 89, 90, 91

쉴레이만 135

스르 아자르 83

신립리 44, 45, 46, 47, 48, 49

심리전 11, 99, 101, 102

○

아타튀르크 133, 134, 135
 아흐센 사야 69
 알라딘 하이다르오울루 69
 앙카라 학교 11, 129, 130, 131, 132, 134, 135, 137, 138
 야샤르 예켄 87, 88
 야샤르 탄촌 129
 영국 여성동맹위원장 114
 와원 31, 43, 44, 45, 49, 51
 우수부대훈장 18, 62, 81, 95, 97, 143, 145
 울루에르 엔진 91
 월튼 H. 워커 28, 51, 52
 윌리엄스 83
 유공훈장 96, 144
 유수프 귀나이든 하사 138
 이맘 103
 이스마일 하크 인제오울루 대령 54
 이재영 84
 이흐산 대위 114
 인천상륙작전 28, 29

ㅈ

자히트 베르크 97
 정전협정 18, 81, 83, 95, 96, 98, 102, 117, 125, 131, 140, 145
 제랄 도라 61, 64, 108
 제와트 바이락 92
 존 R. 하지 중장 22

ㅊ

청천강 31, 53
 치스차코프 대장 22

ㅋ

케말 알칸 39
 콜린스 52
 콜터 소장 41

ㅌ

타임 53
 타흐신 야즈즈 45, 48, 61
 타흐신 쿠르트타이 중령 69
 터키성(城) 78
 퇴계원리 73, 75, 78, 140
 투란 에르칸괴르 64, 103

ㅍ

페리한 곽체 143
 페브지 귀르겐 114, 115
 페흐렌바흐 46, 117
 포로 교환 108, 109, 117, 120, 121
 포로수용소 103, 107, 108, 109, 110, 113, 114, 115, 117, 120, 123, 132

ㅎ

하미드 대위 114

2014년 12월 22일 발행

2014년 12월 22일 1쇄

지 음 알리 데니즐리(Ali Denizli)

옮 김 이선미

감 수 이난아

해 제 노영구

발행인 김왕식

발행처 대한민국의사박물관

110-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02.3703.9200 / www.much.go.kr

디자인, 제작 (주)계문사 02.725.5216

총판 및 유통 정부간행물판매센터

ISBN 978-89-98443-71-9

978-89-98443-69-6(세트)

발간등록번호 11-1371480-000073-01

© 대한민국의사박물관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인지는 생략합니다.